

2016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프로그램

일 시: 2016년 3월 26일(토), 9:30-18:00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 컨벤션 홀

프 로 그 램

등 록	9:30-10:00	등 록	
개 회	10:00-10:05	손 지 봉 학 회 장	
축 사	10:05-10:10	김혜림 이대 통역번역대학원장	
좌 장 이소희 (서울외대)	10:10-10:40	발 표	이유진 (단국대) 한국법정통역인의 사회적 역할
		토 론	한정은 (한국외대)
	10:40-11:10	발 표	박지영 (한국외대) 품질 보증 관점에서의 통역 평가
		토 론	남원준 (한국외대)
coffee break			
좌 장 원종화 (중앙대)	11:20-11:50	발 표	최은아 (한국외대) 한영 동시통역의 운용적 특성 및 청자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토 론	이미경 (경희대)
	11:50-12:20	발 표	이정순 (중앙대) 한중 동시 통역의 전략과 통역품질
		토 론	송현선 (제주대)
점심 식사			
	12:20-13:50		
좌 장 신지선 (이화여대)	13:50-14:20	발 표	이지민 (계명대) 네티즌 번역의 사회적 역할
		토 론	진실희 (중앙대)
	14:20-14:50	발 표	김순미 (숙명여대) 인터넷 시대 비전문가 통번역 참여 현상
		토 론	송연석 (한국외대)
coffee break			
좌 장 조성은 (한국외대)	15:00-15:30	발 표	오미형 (동국대) 글로벌 시장 속 한국 기업과 번역
		토 론	허지운 (이화여대)
	15:30-16:00	발 표	서유경 (한국외대) 한국문화콘텐츠 번역의 기능적 역할
		토 론	이혜승 (수원대)
coffee break			
좌 장 이영훈 (고려대)	16:10-16:40	발 표	최효은 (이화여대) 번역사(史) 연구의 학제성과 그 접근 방법
		토 론	김준한 (고려대)
	16:40-17:10	발 표	최희경 (고려대) 영한번역에 나타나는 어휘 차용 연구 및 교육적 함의 -경영전문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예비 연구-
		토 론	이현경 (한국외대)
	17:10-17:40	발 표	김도훈 (부산외대) 플립러닝 활용 통역 수업 설계 및 운영
		토 론	이주연 (한국외대)
총회 및 폐회	17:40-18:00	손지봉 학회장	

세션 1

10:10-11:10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

좌 장: 이 소 희 (서울외대)

발표자:

이 유 진 (단국대) 한국 법정통역인의 사회적 역할

박 지 영 (한국외대) 품질 보증 관점에서의 통역 평가

토론자: 한 정 은 (한국외대), 남 원 준 (한국외대)

한국 법정통역인의 사회적 역할

이 유 진
(단국대학교)

I. 머리말

「NAJIT 윤리규정과 직업적 책임」 전문에서는 법정통역사의 역할을 통번역을 통해서 최대한 언어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비영어사용자이거나 영어구사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영어사용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도관으로 축어적인 통역을 해주기 바라는 기대부터 통역사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져주기 바라는 기대까지 참여자들의 상반된 기대들로 인해 법정통역사가 맡는 역할이 복잡해질 수 있다 (Leung, 2003). 더 나아가 사법 환경, 참여자들의 기대에 따라 다른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다(Laster & Taylor, 1994: 119).

한국은 법정통역사 인증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통역과 번역이 외국어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근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공판으로 인해 법정통역이 갖는 의미를 진단하고 전문 법정통역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법정통역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법정통역인²⁾들이 재판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법정통역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몇 년 간의 법정통역 관련 언론보도를 검색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법정통역에 관한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법정통역인이 맡고 있는 역할과 법정통역인 역할에 관한 사회적 바람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중국어 법정통역 자연 담화자료와 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법정통역인이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조율해 나가는지에 대해 몇 가지 역할 은유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한국사회의 법정통역 담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법정통역 담론을 살피기 위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법정통역'이라는 주제어를 넣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언론 보도 기사를 검색하였다. 정확성

1) 감정이란 전문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인은 인적 증거방법의 일종이고, 감정인의 신문은 증거조사의 성질을 가진다. 감정인의 소환은 증인소환방법에 의한다.

2) 『법정통역인편람』 등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교육자료에서는 법정통역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에서는 법정통역인을 통역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법정통역사를 법정통역인으로 지칭한다.

순으로 31건의 기사를 발췌하였고 특허소송과 관련성이 높은 국제재판부의 신설 관련 보도 2건과 행정소송 법정통역에 관한 보도 1건을 제외하면 모두 형사재판에 관한 언론 보도이다.

법정통역 자체를 조명한 언론 보도에서는 공통적으로 법원에 접수된 외국인 사건 수 혹은 외국인 형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와 현재 법원에 등록된 통역인의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법정통역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주간동아, 16. 02. 24; 연합뉴스, 16. 02. 15 등). 또한 부산 및 경남지역의 일간지에도 법정통역 관련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됐던 것을 보면 법정통역 수요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경남도민일보, 15. 12. 03).

법정통역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특수성에 대해 판사와 학자의 입을 빌려 소개한 보도도 있다. 사법통역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정적일 수도 있는 사안이 통역의 오류로 잘못 전달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떤 분야 통역보다도 높은 정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학자의 언급(연합뉴스, 13. 03. 07)과 법정통역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확성과 중립성, 완결성 있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판사의 설명도 찾아볼 수 있다(경남도민일보, 15. 12. 03).

검찰과 변호인이 통역에 대해 항의를 하고 법정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통역으로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재판이 지연되었다는 보도도 눈에 띈다(동아일보, 15. 10. 27). 또 오역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보도(주간경향, 15. 12. 17)도 찾아볼 수 있다. 통역인이 간추려 전달하는 일이 잦아질 경우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 자신이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피고인들의 두려움 등 통역에 대한 불신을 소개한 보도도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패터슨의 공판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공판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재판에서 통역이 중개되고부터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공판 자체에 대한 관심은 법정통역 혹은 법정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법정통역인 역할이 전보다 중요해졌고 법정통역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선진국처럼 법정통역사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혹은 법정통역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으로 일축된다.

한편 통역인들을 인터뷰한 언론 보도는 주로 법정통역을 경력이 많은 통역인의 입을 통해 직업 세계를 소개하는 내용이거나 창원 등 지역 이주민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 사례이다. 베테랑 법정통역인은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법정 예절에 대해 설명하는 등 문화 차이 좁히는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자신을 작은 외교관으로 설명한다(서울신문, 15. 06. 05; 조선일보 16. 01. 29). 그리고 이주민 통역인은 판사들이 사용하는 법률언어를 알아듣는 것이 법정통역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라고 설명한다(경남신문, 13. 08. 16).

그밖에 통역인별, 언어별 통역 수준 편차가 있고 소수언어 통역의 전문성 부족하며,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도 요율이 같아서 통역인들이 말기를 꺼려한다는 한국 법정통역과 관련된 현실적인 지적도 있다(동아일보, 15. 10. 27).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담화분석을 통해 형사재판 법정통역사가 어

떠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통역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어 법정통역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담화분석 코퍼스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재판부 2곳에서 녹음된 26 회(총 8시간 15분, 사건 수: 8건)의 외국인 형사재판 담화 전사 자료이다. 전사된 26회의 자료 중 본 논문에서 사례로 제시된 자료는 총 18회이다.

면접조사는 2014년 12월 중순부터 2월초까지 진행되었고, 면접 시간은 평균 1시간이었으며 대상자 당 1회 진행되었고 전원에게 허락을 받고 녹음을 하였다. 면접 대상자 가운데 법정통역만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는 없었고, 8명 중 이주민 출신인 통역사1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통번역대학원 출신이다. 면접 대상 통역사의 법정통역 경력은 1년에서 10년까지 평균 5년이었다.

IV. 분석 결과

1. 법원의 보조자

「법정통역인의 숙지사항」 제2항에 따르면 “통역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정되어 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법원과 같이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통역인의 역할을 ‘법원의 보조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내 형사소송에서는 직권주의적 요소에 따라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갖고 실제적 진실 발견에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에서 기대하는 법원의 보조자는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따르지만 중립적인 공적 보조자의 역할일 것이다. 면접조사 대상자인 통역사2도 “진행은 재판장만 하는 거고, 법정통역사는 재판 진행의 보조자예요.”라고 말하며 공적 보조자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담화분석과 면접조사를 통해 이러한 공적 보조자 역할에 커뮤니케이션 보조자 인식이 더해지며 ‘법원의 보조자’의 의미 범주는 기관의 대변자이자 게이트키퍼로 확장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 기관의 대변자

Ibrahim(2006)은 법원 상근 통역사가 기관의 대변자로서 피고인에게 대답하는 법을 알려 주고, 사법인의 말을 풀어서 통역해주며, 절차상 충고를 해주거나,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애원하고 증거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지휘해준 사례를 연구하였다(208-211). 본 연구 면접조사 대상자 중 등가어가 있는 이상 사법인의 어려운 말도 그대로 통역한다는 통역인도 있었지만 사법인의 법률언어는 피고인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통역해준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히 아래 사례와 같이 『법정통역인 편람』(법원행정처, 2009/2012)의 「통역인의 주의사항」에도 피고인이 구형을 판결로 착각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통역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검사의 구형을 통역할 때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는 통역사들이 있었다.

<사례1. 통역사1 #8-1에서 발췌>

- 1 판: 음.. (1.0) 구형해주시죠?
- 2 검: 피고인에게 벌금 XX만원을:

- 3 판: 네:
 4 통: 檢察官要求刑, 希望你怎么处理的意思, 不是最后的判决, 希望呢罚款XX万韩
 5 币。
 檢사가 구형을 하는데 당신을 어떻게 처리하기 바란다는 뜻이지 마지막 판결이 아니에요. 벌
 금 XX만원을 바랍니다.

담화분석에서도 사법인의 발화를 풀어서 통역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었고 검사가 구형을 할 때 위와 같이 설명을 덧붙이며 사법인의 발화를 풀어서 통역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Hale(2008: 112-114)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발화를 조절하는 것은 정확한 재생을 원칙으로 하는 법정통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고 대화주체에 사실 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례2. 통역사1 #3-2에서 발췌>

- 1 판: =그러니까, 피고인이 본인이 말한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누군가
 2 → 가 피해자를 법정에 데리고 와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
 3 통: 如果是证明你说的话是真实的话呢, 反正呢, 你需要各种方法地可以把那个受害
 4 → 人帶到法庭来她吗, 当面儿, 说, 就是, 我已经取消了这个:起诉,
 만약에 당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당신은 각종 방법으로 그 피해
 자를 법정으로 데려와야 하잖아요. 와서, 말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고소를 취
 소하였다 라고요.

위 사례에서 2행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진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통역사1은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고소를 취하겠다고 말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통역을 한다. 화용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에서의 경험한 법률지식에 근거하여 사법인의 말을 풀어서 통역을 했을 경우 원발화의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게이트 키퍼

동문서답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통역사 생각에 바른 답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질문을 되풀이하는 담화분석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에서 사법기관의 대리인 인식을 가지고 억압적인 통역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분석한 국내 연구가 있다(이지은, 2012: 162).

본 연구 결과 통역인의 이러한 개입은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여 재판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겠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확인하였다. 이 과정 가운데 편집되는 발화는 신변 잡기적인 말일 수도 있고 소통에 실패하여 나오게 된 피고인들의 동문서답일 수도 있다. 아래 사례에서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문서답을 하자 통역인이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사례3. 통역사1 #3-2에서 발췌>

- 1 판: 그럼, 단추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보라고 하세요.
 (중략)
 15 피: [到外面, 我说, 我不是为你来的。我是老板-叫我拿钱过来的。
 밖에 가서 저는 너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장이 돈 가지러 오라고 한 것이다.

16 →통: 他问什么你回答什么,好不好?
그가 묻는 것에 대해 대답하는 게 어때요?

위의 사례에서 통역인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개입을 하지만(16행 참조) 이러한 통역인의 개입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면접조사에서도 신문사항이 많고 시간에 쫓길 때는 피고인에게 직접 다시 질문을 하거나 일부 신변잡기적인 내용을 편집한다는 대답이 있었다.

“시간이 많을 때에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리는데, 신문사항이 너무 많으면 그냥 피고인에게 직접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통역사5)

“증인 혹은 피고인이 동문서답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변잡기적인 것은 삭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진짜로 칼을 휘둘렀는지 내지는 넘어뜨렸는지에 대한 대답을 통역해주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간 때문이죠.” (통역사3)

<사례4. 통역사1 #5-3에서 발췌>

- 1 변: 2007년 2월 20일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을 때 만든 김XX 명의의 여권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입니까?
- 3 →통: 以你的名字김XX来的时候, 2007年2月20号来的=
당신의 이름 김XX로 왔을 때, 2007년 2월20일에 온 거요.
- 4 →피: =呃, 国籍, 国籍 취득하러
여, 国籍, 国籍 취득하러
- 5 →통: 不是, 就是中国这个合法正式发的你::护照吗?
아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발급한 당신의 여권이냐고요?
- 6 →피: 嗯, 发(x)的护照,
네, 발급한 여권이요.
- 7 →통: 是正式发的护照, 是吧?
정식으로 발급한 여권이죠?
- 8 →피: 对对对.
예예.
- 9 통: 네, 맞습니다.

위 사례에서 변호사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의 형태로 신문을 한다. 통역사는 피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재구성하여 전달하려 하지만(3, 5행 참조) 피고인은 통역사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끼어들어 다른 사항에 대한 대답을 한다(4행 참조). 통역사는 아니라는 말을 삽입하고 변호사의 질문을 계속해서 통역한다(5행 참조). 6행에서 피고인이 한 번 대답을 하지만, 통역사는 7행에서 다시 확인 의문문 형태로 질문을 하여 “예”라는 대답을 이끌어낸다(8행 참조). 위 사례와 같이 피고인이 질문 내용 및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신문이 지체될 수 있는데, 통역사는 피고인이 끼어들어서 하는 말은 통역하지 않고 폐쇄형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을 얻도록 다시 질문을 한다. 면접조사에서도 “보통 동문서답을 그대로 통역은 하지만, 판사가 원하는 게 “예, 아니오.”라는 판단이 섰으면 그 대답이 나오게끔 한 번 더 질문을 해요.”(통역사7)라는 대답과 같이 통역인이 질문에서 의도

된 효과를 살려 통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절한 대답이 안 나왔을 때 커뮤니케이션 상의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법정통역 전문가

면접조사 대상자들은 “아직까지 전문가는 아니고, 일회성 역할을 하고 있어요.”(통역사8),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통역사1)라고 현재 한국에서의 법정통역인의 사회적 위상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법정통역인이 말아야 할 역할을 물었을 때, “언어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통역사6), “말을 잘 전달하는 것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통역사4), “소통이 되게 하는 역할.”(통역사8) 등으로 대답하며 통역인의 역할 범위가 말을 전달하여 ‘소통’이 가능케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 언어도관

언어도관 역할은 사법인들은 통역을 기계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정확한 법정통역에 대해 변경, 누락, 첨가, 부가설명이 전혀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Mikkelson, 2008: 81). 본 연구 담화분석 코퍼스 가운데 원발화를 완벽하게 재생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래 사례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연 담화 자료에서 피고인의 발화를 통역한 사례 중 재생하는 방식에 가깝게 통역한 것이다.

<사례5. 통역사2 #2-1에서 발췌>

- 1 피: 哦, 对不起, (xxxxxxx), 请求法官大人原谅, 给我重新改过做人的机会。
네, 죄송합니다, (xxxxxxx), 판사님께서 용서해주셔서 저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 통: 네,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용서해주시시오.
- 3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통역은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하거나 의미만 전달해도 되는데, 법정통역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한 순서까지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통역해야 하잖아요.” (통역사5)

“당연히 말한 그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있을 때, 통역사를 통역기계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투리가 너무 심해 못 알아들어 “언어 파악 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물어봐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왜 못 알아듣지? 왜 통역을 못하지? 통역사인데 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통역사5)

통역사5는 법정통역에서 도관과 같이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모든 발화를 기계처럼 전달해주길 바라는 사법인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축어역으로 등가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원천언어의 의미가 왜곡된다면 축어적 통역 내지 단어 대 단어의 직역은 적절하지 않다(Mikkelson, 2008: 81-94).

2) 원발화의 충실한 재현자

법정통역에서의 정확성은 모든 발화 내용과 표현, 뉘앙스 및 의도된 효과를 최대한 충실하게 재생하는 것이다(de Jongh, 1992; Gonzalez et al., 1994; Berk-Seligson, 2002). Hale(2008)은 원발화를 충실하게 재생하는 것을 법정통역사가 맡아야 할 바람직한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생은 축어적인 재생이라기보다는 화용적 등가 달성의 과정이다(Hale, 2004). 비록 국내 법정통역 규범에서는 피고인 혹은 증인의 말을 충실하게 재생할 것만을 권고하고 있지만 면접조사 대상자들 중에 원발화를 최대한 충실하게 재생하는 것을 법정통역인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통역사들도 있었다.

“등가어가 있는 경우,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말이라도 등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률적 등가를 달성하는 게 법정통역사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피고인이 질문을 하고 그런 다음 판사가 설명해줄 수 있겠죠. 통역사가 설명을 하면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통역사2)

“한국어로 리플레이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편이에요. 만약에 목소리가 근엄하면 저도 목소리 톤을 그렇게 바꿔요. 서로가 한 자리에서 두 개의 다른 언어로 된 영화를 한 편씩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배우고요.” (통역사2)

아래 사례는 각각 태국어, 한국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피고인 세 명에게 마사지 자격증이 나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이다.

<사례5. 통역사2 #3-1에서 발췌>

- 1 →판: 그럼, XX 피고인은 태국 마사지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중략)
- 6 →판: 그럼 이XX 피고인은 어느 나라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 7 피3: 한국 거.
- 8 →판: 한국. 네. 그럼 김XX 피고인은 혹시 뭐 그런 자격증 있어요?
- 9 →통: 被告人有没有什么按摩执照, 或者皮肤管理师那样的执照?
피고인은 뭐 마사지 자격증 혹은 피부관리사 같은 자격증이 있나요?

피고인 세 명이 각각 태국어, 한국어, 중국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장은 자신의 말이 각기 다른 외국어로 통역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듯이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역인은 재판장의 말은 축어적으로 통역하기보다는 정보를 원발화에서 의도한 효과를 재생하여 화용적 등가를 달성한다.

VI.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법정통역인이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통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법정통역인이 자신의 역할을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기관의 보조자로 상정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진행 및 결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면접조사를 통해 전문가로 자리매김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도 법정통역 시 전문가적 책무를 다한 통역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통역인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기관의 대변자 혹은 게이트키퍼로 조율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전문가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채 재판의 원활함으로 통역 품질이 평가될 수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보조자' 역할이 '기관의 대변자'나 '게이트키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 법정통역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법정통역사가 어떠한 전문가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 사법제도에서 법정통역인은 기본적으로 재판장의 소송 지휘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문적 능력으로 법원을 조력하는 법정통역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통역의 전문화를 위해서 공인법정통역사 인증제와 같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충분한 수준의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정통역인을 선발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 후 그에 걸 맞는 책무를 지워줄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진아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2), 21-37.
- 법원행정처 (2009/2012). 『법정통역인편람』. 서울: 법원행정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형사법정통역인교육자료』. 서울: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지은 (2012). 『다문화사회의 사법통역』. 서울: 집문당.
- de Jongh, E. M. (1992). *An Introduction to Court Interpreting: Theory and practice*.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Gonzalez, R. D., Vasquez, V., & Mikkelson, H. (1991). *Fundamentals of Court Interpretations: Theory, Policy and Practice*.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 Hale, S. (2004). *The Discourse of Court Interpret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_____ (2008). Controversies over the role of the court interpreter. In C. Valero-Garces, and A. Martin (eds.), *Crossing Borders in Community Interpreting* (pp. 99-12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Ibrahim, Z. (2006). The interpreter as advocate: Malaysian court interpreting as a case in point. In C. Wadensjö, B. Dimitrova and A. Nilsson (eds.) *The Critical Link 4* (pp. 205-213).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Laster, K., & Taylor, V. (1994). *Interpreters and the Legal System*. Leichhardt: The Federation Press.
- Mikkelson, H. (2008). Evolving views of the court interpreter's role: Between Scylla and Charybdis. In C. Valero-Garces, and A. Martin (eds.), *Crossing Borders in Community Interpreting* (pp. 81-97). Amsterdam: John Benjamins.
- NAJIT. (n.d.).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30 June. Available at www.najit.org/about/NAJITCodeofEthicsFINAL.pdf

- [法으로 본 세상] 전문 법정 통역사가 필요해!. (2016. 02. 24). 주간동아.
18年前 피했던 '이태원 살인' 통역, 운명처럼... (2016. 01. 29). 조선일보.
"사인 박근혜를 해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다". (2015. 12. 17). 주간경향.
외국인 범죄 늘자 법정 통역 중요성도 커져. (2015. 12. 03). 경남도민일보.
방산비리 재판 통역인, 군사용어 쏟아지자 '찝찝'. (2015. 10. 27). 동아일보.
낮선 이방인의 입이 되는 사람들. (2015. 06. 05). 서울신문.
[사람속으로] 베트남 귀화인 고희선 씨. (2013. 08. 16). 경남신문.
<사람들> 사법통역 과정 개설한 이지은 교수. (2013. 03. 07).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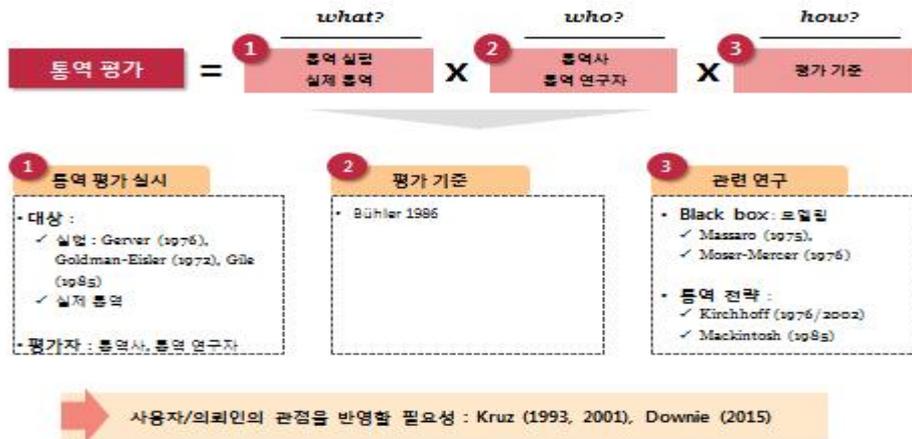
품질보증 관점에서의 통역 평가

2016년 3월 26일

박지영

통역평가연구의 흐름

통역사에 의한 통역 평가



통역 평가 연구의 흐름

통역 사용자에게 의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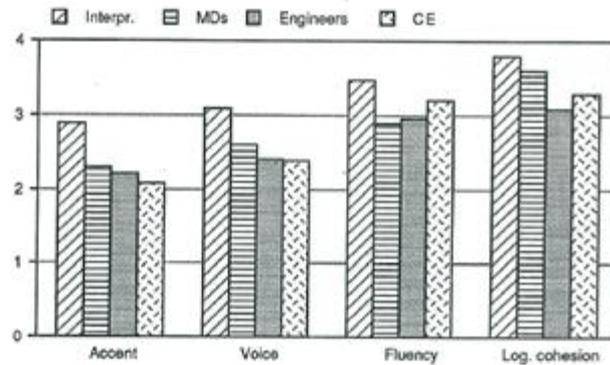
<p>통역사 vs. 통역 사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점 : Kruz (1989) • 차이점 : Marrone (1993), Moser & Mackintosh (1995), Kopczynsky (1994)
<p>통역 사용자 그룹간 선호 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분야, 회의 규모, 연령, 지역/국가별 선호 차 ✓ Moser & Mackintosh (1995), Kruz & Pöchhacker (1995), Viaggio (1996)
<p>통역 사용자의 기대 vs.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öchhacker (1994): 발화속도, 휴지, 머뭇거림, 억양 등에 따라 고객의 품질인식 달라
<p>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언어 능력 • 사용자에 의한 통역 평가의 오류 ✓ Shlesinger (1997), Ng (1992), Kahane (2000), Downie (2015)

3

통역 평가 연구의 흐름

통역 사용자에게 의한 평가(1)

<p>통역사 vs. 통역 사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점 : Kruz (1989) • 차이점 : Marrone (1993), Moser & Mackintosh (1995), Kopczynsky (1994)
------------------------------	---



집단별 품질 평가 기준 순위 (Kruz 1989)

4

통역 사용자에게 의한 평가(2)

통역 사용자
그룹간 선호 차

- 주제 분야, 회의 규모, 연령, 지역/국가별 선호 차
- ✓ Moser & Mackintosh (1995), Kruz & Pöchhacker (1995), Viaggio (1996)

- Kopczynsky (1994)
 - 인문학 분야 vs. 과학기술, 외교 전문가
- Kruz & Pöchhacker (1995)
 - 발음국의 통역 사용자 vs. 일반 통역
- Viaggio (1996)
 - 북유럽인
 - 지중해 연안
 - 중국

5

통역 사용자에게 의한 평가(3)

통역 사용자의
기대 vs. 인식

- Pöchhacker (1994): 발화속도, 휴지, 머뭇거림, 억양 등에 따라 고객의 품질인식 달라

6

통역 평가 연구의 흐름

통역 사용자에게 의한 평가(4)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언어 능력 • 사용자에게 의한 통역 평가의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lesinger (1997), Ng (1992), Kahane (2000), Downie (2015)
----	--

- 사용자에게 의한 통역 평가의 오류
 - Shlesinger (1997): 내용 왜곡, 누락 시에도 전달력이 좋으면 품질을 좋게 인식
 - Ng (1992): 통역이 이해되지 않으면 연사가 아닌 통역사의 잘못
 - Kahane (2000): 관심있는 내용에만 집중
 - Downie (2015): 실질적 통역은 실제 통역에 대한 평가와 달라

7

서비스 실패

서비스 실패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RVQUAL 모형 (Zeithaml, Berry & Parasuraman 1985) • 서비스 실패 (Maxham 2001, Zeithaml, Parasuraman & Berry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소재 (Berry & Parasuraman 1991, Johnson 1995) ✓ 서비스 회복 (Heskette, Sasser & Hart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사건 연구 방법(critical incident technique) : Flanagan 1954, Strauss & Weinlinch 1996 • 데이터 분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역 품질보증 체계(Kalina 2005)

8

SERVQUAL 모형



QA Data Sheet on Interpreting Assignments

변수	측정할 데이터	결과
Pre-process		
통역 문의	문의일, 행사일	
문의하게 된 경로	전화, 이메일, 기타	
상세 문의사항	필요 언어 수, 방향, 통역 방법, 주제 등	
요청 언어	언어의 수	
요청한 언어 방향	언어의 수	
Peri-process		
출장 관련 정보	담당자, 시간	
도착 시간 정보	도착일	
회의 중 조율 사항	문제, 해결책	
장비 시뮬 가동	예/아니오, 상세 문제점	
설치된 장비의 기능	음량, 오디오/비디오 전송, 마이크, 기술 지원	
부스의 수	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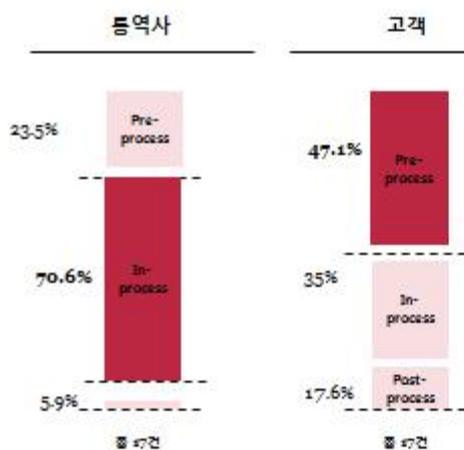
[Back-up Slide]

QA Data Sheet on Interpreting Assignments

변수	증정할 데이터	결과
In-process		
통역 수행 관련 사항	통역사별 아웃풋 관련 변수 (미시/거시 차원에서 내용, 형식, 전달력)	
청중	전문가, 비전문가, 일반 대중	
언어당 청취자 수	비율(%), 상태	
청중의 구성	언어, 문화, 다양성의 정도	
통역사에 대한 피드백	종류, 정도, 출처	
릴레이 통역	비율(%), 방향, 언어	
Post-process		
비밀유지	공개/기밀	
자가 평가	본인 통역 능력 및 검토의 빈도, 확인 사항	
고객 연락	피드백, 사용자 만족도, 출판사항	

11

품질보증 관점에서 본 통역 서비스 실패 요인



주요 내용

- ✓ 전체 통역 프로세스 중 통역사와 고객의 귀척 사유로 발생하는 서비스 실패는 거의 동일한 비중
- ✓ 통역 전 프로세스에서는 주로 **고객의 실수**로 인한 서비스 실패가 발생
- ✓ 통역 중 프로세스는 전문 용어 미사용, 배경 지식 부족으로 인한 내용 전달의 오류 또는 생략으로 인한 **통역 품질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

12

세션 2

11:20-12:20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

좌 장: 원 중 화 (중앙대)

발표자:

최 은 아 (한국외대) 한영 동시 통역의 운율적 특성 및 청자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이 정 순 (중앙대) 한중 동시통역 전략과 통역품질

토론자: 이 미 경 (경희대) 송 현 선 (제주대)

한영 동시통역의 운율적 특성 및 청자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최 은 아 (한국외국어대학교)

I. 연구배경 및 개요

연구 배경

- 동시통역의 주요 특징으로 보고된 '동시통역 어투' 혹은 '동시통역 운율(SI prosody, interpretational prosody)
- 한국어-영어 언어조합에서는 관련 연구가 없음
-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부족함

연구 목적

- 영한 동시통역에서 나타나는 동시통역 운율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 동시통역 운율이 청자가 느끼는 통역 품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 실험하기

II. 이론적 고찰

동시통역 운율에 대한 기존 연구

- Shlesinger, 1994; Ahrens, 2004, 2005a, 2005b, 2008; Collados Aís, 1998; Williams, 1995; Nafá Wassaf, 2007; Holub, 2010; 최은아, 2014

동시통역 운율의 주요 특징 (Shlesinger, 1994)

- 휴지(pause): 비문법적 위치의 변칙적 휴지; (2.5초 이상의) 긴 휴지
- 강세(stress): 의미론적 대조(semantic contrast)에 맞지 않는 강세
- 성조(tone): 변칙적 성조, 특히 말미의 비종결 억양(non-final intonation in final position)
- 기타: 음 높이기 현상; 갑자기 빨라지는 발화속도

III. 연구방법: 동시통역의 운율적 특성 조사하기

연구개요 및 방법

- 온라인에서 실제 한영 동시통역 자료를 녹음한 후 전사, 전사한 파일을 동일한 통역사가 소리 내어 읽음
- 통역 파일과 낭독 파일을 비교(피험자 내 비교), 동시통역만의 운율적 특징을 규명함(Shlesinger, 1994)
- 청각적 측정 & 기기 측정 모두 활용

연구자료

- ST, TT는 모두 실제 동시통역 현장의 음원, 동일한 회의에서 취함
- 180초 분량의 ST 파일 20개, 대응하는 TT 파일 및 낭독 파일

Ⅲ. 연구방법: 동시통역의 운용적 특성 조사하기

실험대상

- 5명의 한영 국제회의 통역사
- 모두 여성, 동 대학원 졸업, 평균 7년의 경력

연구자료

- ST, TT는 모두 실제 동시통역 현장의 음원, 동일한 회의에서 취함
- 총 60개의 음성 파일 (약 180초 분량의 ST 파일 20개, 대응하는 TT 파일 및 낭독 파일)

Ⅲ. 연구방법: 동시통역의 운용적 특성 조사하기

실험장비: 프라트(Praat)

- 프라트(Praat)를 이용해 온라인 자료 녹음, 전사, 주석(annotation), 분석 (www.praat.org)
- Windows, Mac, Linux/Unix OS 모두 지원
- 오픈소스 (Praat script)
- 음성신호의 시각적 표현; 조작 및 변조 가능;
- 파일의 전사, 주석, 분절 가능; TextGrid
- 휴지와 발화구간의 (반)자동적 측정이 가능해 특히 시간양상 연구 (temporal studies)에 적합

Ⅲ. 연구방법: 동시통역의 운용적 특성 조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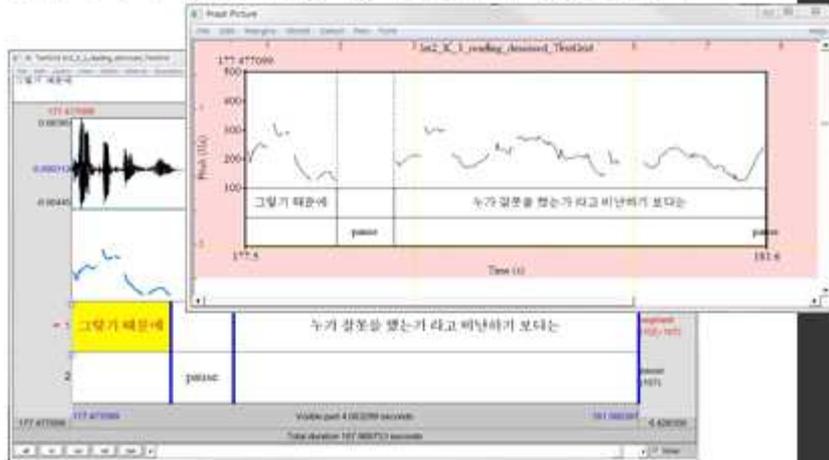


그림. Praat picture 창으로 그림 만들기

Ⅲ. 연구방법: 동시통역의 운용적 특성 조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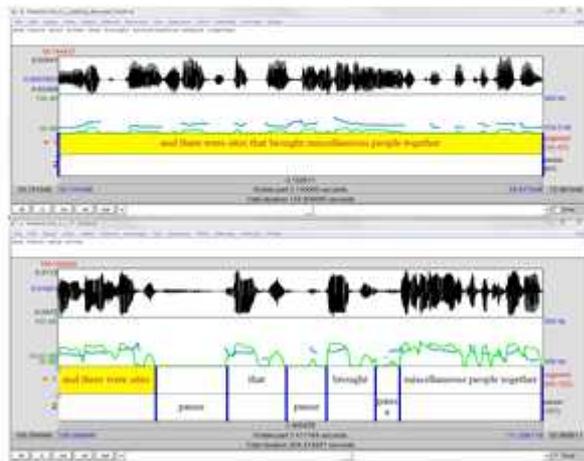


그림. 프라트를 이용한 통역 파일과 낭독 파일 간 비교

III. 연구방법: 동시통역의 운율적 특성 조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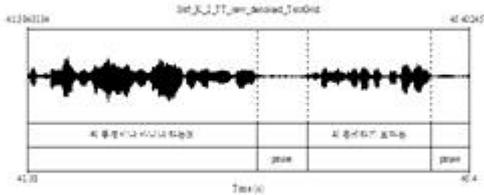
동시통역 운율 요소의 분류 및 측정

항 목	동시통역의 운율적 자질	측 정
Tonality	문법단위 내의 변칙적 휴지	- 0.25초 이상의 묵음 휴지 (silent/unfilled pause) 전체 - 변칙적 휴지의 빈도 - 휴지 길이(시간)
Tonicity	의미론적 대조(semantic contrast)에 맞지 않는 강세	- 변칙적 강세의 빈도
Tone	변칙적 성조; 말미의 비종결 억양	- 비종결 억양의 빈도
Other (duration & speed)	음 늘이기 현상; 갑자기 빨라지는 발화속도	- 길게 늘인 음절의 빈도 - 발화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구간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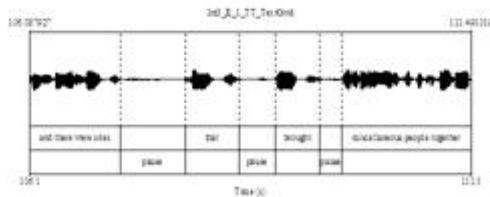
IV. 연구결과: 동시통역의 운율적 특성 조사하기

변칙적 휴지

예시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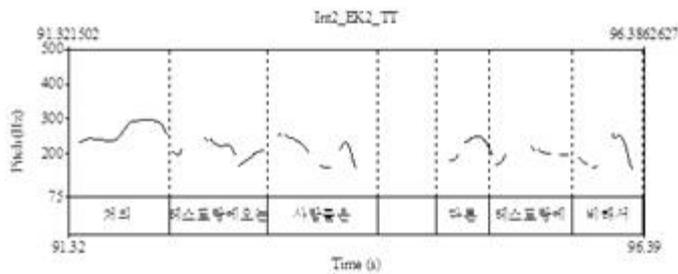
예시 (E)



IV. 연구결과: 동시통역의 운율적 특성 조사하기

전치사(E)와 조사(K)에 강세가 오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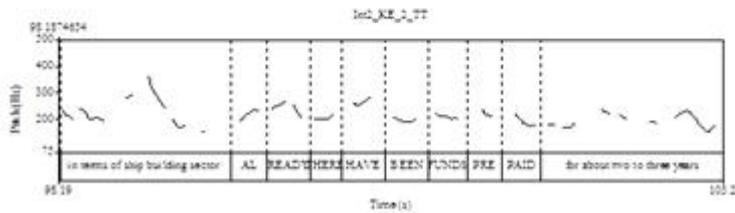
Transcript(TT): 격외 히스토랑에 오는 사람들은 [0.518]
 있을 히스토랑에 비해서 [1.148]



IV. 연구결과: 동시통역의 운율적 특성 조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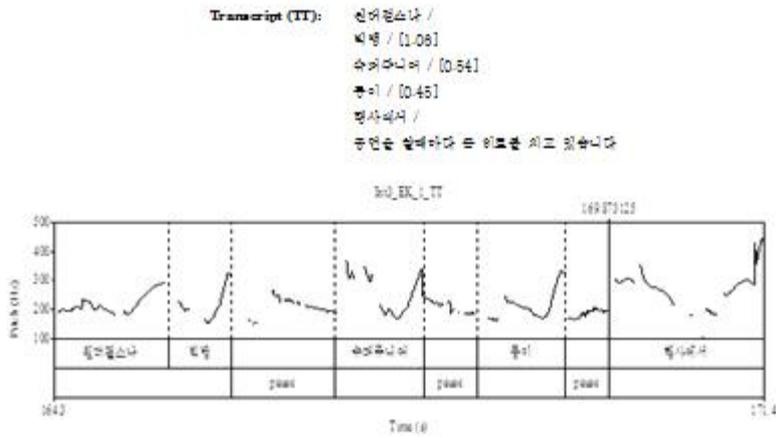
모든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

Transcript (TT): I think that [0.48]
 in terms of ship building sector
 ALREADY
 THERE
 HAVE
 BEEN
 FUNDS
 PREPAID
 for about two to three years [0.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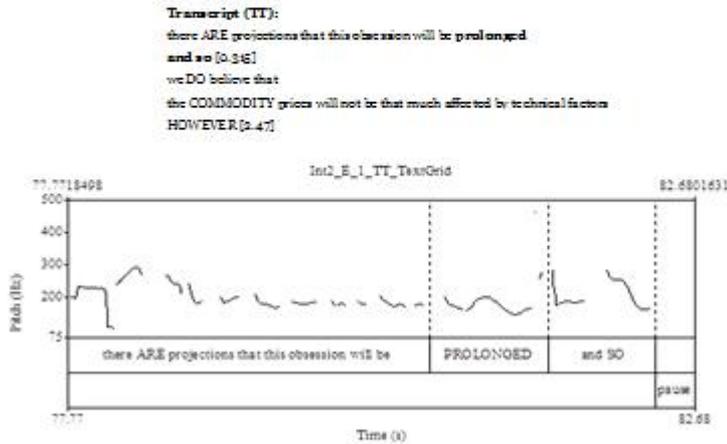
IV. 연구결과: 동시통역의 운율적 특성 조사하기

변칙적 성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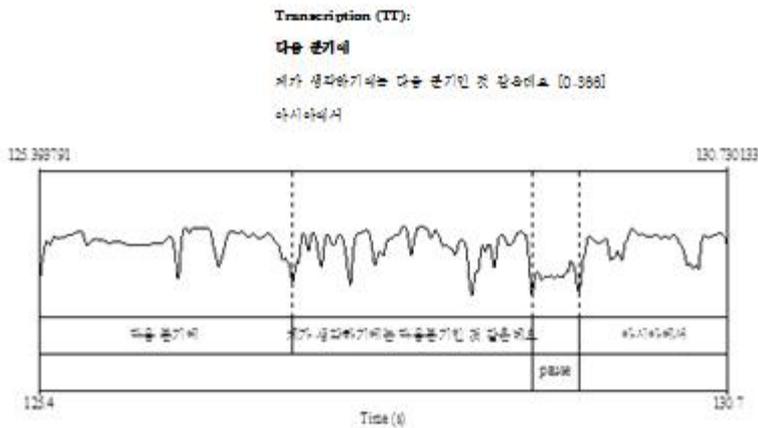
IV. 연구결과: 동시통역의 운율적 특성 조사하기

음 높이기: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 끌기



IV. 연구결과: 동시통역의 운율적 특성 조사하기

빨라지는 속도



IV. 연구방법: 동시통역의 운율적 특성 조사하기

연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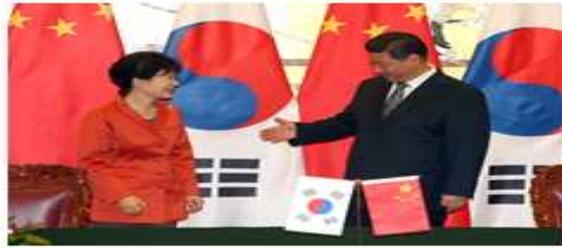
- 다른 언어조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특징들이 똑같이 발견되었지만 통역의 방향성에 따라 그 정도와 양상에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었음
-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통역 결과물에서 발견된 후지의 수는 원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 길이가 길었고, 음을 길게 늘이는 현상(lengthening/holding)이 많았으며, 영→한 통역 결과물에서는 변칙적 후지의 길이가 더 길고 수평조에 해당하는 경계성조(level boundary tone)가 많았음. 이와 같은 변칙적 운율은 통역사가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거나 연결문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비롯된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음

VII. 결론 및 논의

- 다른 언어조합에서 보고된 대표적 운율적 특징이 한국어-영어 조합에서도 나타남
- 대표적 특징: TT에서 휴지가 적지만 더 길고, 한-영 방향에서 변칙적 휴지의 길이가 길고, 한-영 방향에서 말미 경계성조가 수평조인 경우가 많았으며, 음 끝기 현상이 두드러짐
- 이러한 특징은 통역사의 불확실성 반영
- 동시통역 시에 운율을 '시간 버는 장치'로 활용; 자기 발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않음 (향후 연구 과제)
- 이러한 동시통역 운율에 대해 청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나 통계 수치상 품질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기술통계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 보다 큰 표본으로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음

관련 참고문헌 목록

- Ahrens, B. (2004). Non-verbal phenomena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Causes and functions. In D. Ode, G. Hansen & K. Malmkjær (Eds.), *Onions, changes and challenges in translation studies: Selected contributions from the EST congress, Copenhagen 2001* (pp. 227-257).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Ahrens, B. (2005a). Analyzing prosody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difficulties and possible solution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5, 1-14.
- Ahrens, B. (2005b). Prosodic phenomena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7(1), 51-76.
- Ahrens, B. (2008). Pauses (and other prosodic featur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Forum*, 5(1), 1-18.
- Collado Ais, Á. (1998). Quality assessment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he importance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F. Pöchhacker & M. Shlesinger (Eds.),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pp. 520-556).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alliday, M. A. K. (1990). *Spoken and Written Language*,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hob, E. (2010). Does intonation matter? The impact of monotony on listener comprehension.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17-126.
- Nafi Wassaf, M. L. (2007). Intonation and the structural organization of text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9(2), 117-198.
- Shlesinger, M. (1994). Intonation in the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S. Lambert & E. Moser-Lerner (Eds.),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p. 225-256).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hlesinger, M. (2005). Effects of presentation rate on working memory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he Interpreters' Newsletter*, 37-40.
- Williams, S. (1995). Observations on Anomalous Stress in Interpreting. *The Translator*, 1(1), 47-64.



한중 동시통역 전략과 통역 품질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한중통번역과정 이 정 순

목 차

- ▶ I. 한-중 동시통역의 제약요인
- ▶ II. 선형(線型) 동시통역 원칙
- ▶ III. 예측, 반복, 전환, 단순화 기법
- ▶ IV. 기법 활용과 통역 품질 간 상관관계

I. 한-중 동시통역의 제약 요인

▶ [예문2]

- ▶ a. 북미지역과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와 가스 자원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역내 전력망과 가스배관망,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합니다.
- ▶ b.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부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세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 담당해 나가자고 하는 공동발표문의 취지를 양국 의회가 앞으로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정순, 2014)

* 밑줄:관형어 / 굵은 이탤릭체:중심어

II. 선형(線型) 동시통역 원칙

▶ 1. 정의

- ▶ - ST의 언어 구조 조정을 최소화하여 연사의 발화 순서에 따라 ST를 여러 개의 의미단위로 나누고 이들의 의미단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ST의 전체 메시지를 TT로 전환하는 방식
- ▶ - 통역사가 ST 정보를 즉각적으로 저장하고 어순을 조정하는 데 있어 시간과 노력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식이자 어순 차이가 큰 언어조합 간의 동시통역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

II. 선형(線型) 동시통역 원칙

▶ 2. 선형 동시통역 방법

- ▶ - 최대한 ST 어순을 따라 통역하다가 더 이상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면 해당 문장을 마무리한 후 새로운 문장을 시작

▶ [예문3]

- ▶ ST:①2002년에 탄생한 ②여성금융인 네트워크의 ③10주년 기념 리셉션 ④개최를 ⑤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TT:①2002年成立的②女金融家联合会③10周年纪念晚宴(在这里)④召开, (我对今天活动的召开)⑤表示热烈祝贺。

III. 예측, 반복, 전환, 단순화 기법

▶ 1. 예측 기법

- ▶ - 언어 내 예측: 언어 별 문법 규칙, 표현방식에 기반하여 후행문 예측
- ▶ - 언어 외 예측: 회의주제, 연사 정보, ST 문장의 연설문 내 위치에 기반하여 후행문 예측

▶ 2. 반복 기법

- ▶ - TT의 맥락의 명료화를 위해 ST 선행문의 중심어를 후행문에서 명사 혹은 지시대명사를 이용하여 재언급

▶ 3. 단순화 기법

- ▶ - ST 핵심 정보 전달을 위한 부차적 정보 혹은 문장성분의 생략

▶ 4. 전환 기법

- ▶ - ST의 非동사를 TT의 동사로 전환함으로써 '열린 구조' 생성

III. 예측, 반복, 전환, 단순화 기법

▶ [예문4]

- ▶ ㉠저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 제시된 미래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내야만 하는 실천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엄중한 약속이라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개발의제에 담겨있는 17개 개발목표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 ▶ * ㉠: Anticipation, 예측 / ㉡: Repetition, 반복
- ▶ ㉢: Simplification, 단순화 / ㉣: Conversion, 전환

IV. 기법 활용과 통역 품질 간 상관관계

▶ 1. 실험 설계

- ▶ - 실험 텍스트: 박근혜 대통령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문(2015년 9월 27일), 26개 문장
- ▶ - 실험 대상: 통역대학원 3학기 재학생 9명
- ▶ - 피험자 정보: A언어 중국어, B언어 한국어 3명 / A언어 한국어, B언어 중국어 7명.
- ▶ - 실험 전 동시통역 강의 실시 내역: 동시통역 강의 10회 실시, 동시통역 기법 관련 설명 실시, 실험 시작 전 통역 기법 재차 설명
- ▶ - 실험 후 데이터 구축 방식: 피험자 본인의 통역 녹음파일 전사 및 통역기법 기술

IV. 기법 활용과 통역 품질 간 상관관계

▶ 2. 통역 품질 평가 기준

- ▶ 1) 평가 주체
 - ▶ - 연사, 청중, 통역사
- ▶ 2) 평가 요소
 - ▶ - 내용, 동시성, 뛰어난 말솜씨, 음성
- ▶ 3) 평가 기준
 - ▶ - 충실성과 정확성, 발음/언어 측면/ 논리, 통역 목적의 달성 여부(Shlesinger, 1997)
 - ▶ - 내용의 명확성, 언어 수용성, 전문용어 사용의 정확성(Gile, 1995)
- ▶ 4) 본고의 평가 기준
 - ▶ - ST 메시지 전달의 정확성

IV. 기법 활용과 통역 품질 간 상관관계

▶ 3. 통역기법 활용 빈도

기법	예측	반복	전환	단순화	복합기법 사용빈도	A/B언어
피험자						
통역자1	5(4)	7	9	7	8	중/한
통역자2	6(4)	9	10	5	9	중/한
통역자3	6(3)	11	9	5	10	중/한
통역자4	7(5)	0	4	8	7	한/중
통역자5	13(10)	3	3	9	4	한/중
통역자6	8(6)	3	5	7	4	한/중
통역자7	10(7)	4	3	9	5	한/중
통역자8	9(5)	5	6	7	6	한/중

* 괄호() 안 숫자: 예측기법을 단독으로 사용한 횟수

IV. 기법 활용과 통역 품질 간 상관관계

▶ 4. 기법 활용도와 통역 품질 간 상관관계

피험자	기법 예측	복합기법 사 용빈도	통역의 정확성 (문장수)	A/B언어
통역자1	5(4)	8	17	중/한
통역자2	6(4)	9	16	중/한
통역자3	6(3)	10	20	중/한
통역자4	7(5)	7	16	한/중
통역자5	13(10)	4	14	한/중
통역자6	8(6)	4	15	한/중
통역자7	10(7)	5	16	한/중
통역자8	9(5)	6	17	한/중

IV. 기법 활용과 통역 품질 간 상관관계

▶ 5. 데이터 분석 결과

- ▶ 첫째, 예측 기법에 대한 언급이 적을수록 반복과 전환 기법을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 둘째, 반복과 전환 기법을 사용한 빈도가 높은 통역자일수록 다중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고, 반대의 경우 그 비율이 낮았다.
- ▶ 셋째, 단순화 기법의 활용 빈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전략적 활용 이라기 보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 ▶ 넷째, 다중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빈도가 높을수록 통역의 정확성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감사합니다!



세션 3

13:50-14:50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

좌 장: 신 지 선 (이화여대)

발표자:

이 지 민 (계명대) 네티즌 번역의 사회적 역할

김 순 미 (숙명여대) 비전문가 통번역 참여 현상

토론자: 진 실 희 (중앙대), 송 연 석(한국외대)

네티즌 번역의 사회적 역할

계명대학교
이지민



네티즌

- Web 2.0 시대
- 누리꾼?
- Habermas
- Net + Citizen
- 단순한 인터넷 방문자나 사용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공동의 사회적 아이디어와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인터넷 사용자



네티즌

아시아투데이

2016-03-08(화) 서울 8.2°C

www.kmhk.co.kr

국 경제 연애-스포츠 오피니언 월드투데이 타임라인 포토 웹툰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스포츠 여행

미스컨덕트 기사

이병헌과 알파치노의 만남 '미스컨덕트' 메인 예고편 및 스틸컷 티즌 뜨거운 반응

2016-03-08 09:58

네티즌 악플

네티즌 수사대

네티즌 번역

아시아투데이

2016. 03. 08 (화)

서울 7.3°C

뉴질랜드 18.2°C

도쿄 15.5°C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연애-스포츠 오피니언 월드투데이 타임라인 포토 웹툰

경제 인터넷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스포츠 여행

HOME > 연애 스포츠

한국 이라크, 2-0 완승...가생이닷컴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

박이담의 기사 더보기

가* 가*

현재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원활치 않습니다.
잠시후에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생이닷컴-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네티즌 번역

분류 기준	주체 중심	공동체 중심	참여자 간 상호작용 중심
명칭	팬 번역 아마추어 번역 비전문가 번역 사용자 생산 번역	공동체 번역 (community translation) 자원봉사 번역 (volunteer translation)	협업 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 클라우드소싱 번역 소셜 번역(social translation)



네티즌 번역의 특징

- 주체: 아마추어? 비전문가?
- 공간: 가상공간
- 협업적(collaborative), 반복적(iterative & palim (evolutionary) 방법으로 콘텐츠 생산 및 소비
- 사용자와 생산자가 동일
- 내부지향적 소비모델(consumer-oriented model of internality)

Prodsusage (Bruns 2008)

vs. 외부지향적 생산모델 (production-oriented model of externality) (Cronin 2013)



협업? 집단지성?

- 집단지성 정의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하여 얻게 된 지적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집단적 능력
- William Morton Wheeler
- Pierre Levy, Charles Leadbeater, James Surowieki 등을 거치며 체계화



집단지성

- Pierre Levy (1994/2002)
 - “어디에나 분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며,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것”
 - 어디에나 분포하는 지성: 지식은 인류 안에 있다
 - 지속적으로 가치부여되는 지성: 인간의 지성을 개발·활용해야
 -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지성: 디지털 정보기술에 근거해 자발적 지속적 상호작용
 - 역량의 실제적 동원: 지식의 다양성을 알고 타인의 가치 존중, 적극적인 집단적 기획에 참여



집단지성 사례

- 리눅스
- 위키피디아
- 삼성경제연구소 “집단지성 연구방”

→ 가상공간에서 네티즌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성을 축적



집단지성과 네티즌번역

- 위키리크스한국
- TED Open Translation
- Viki
- flitto

- 네이버 지식인
- 가생이닷컴
- DCinside



공론장

- Habermas
 - 공중으로서 모인 개인들의 공간
 - 시민사회(상품생산과 사회적 노동 영역), 정치적 공론장, 문예적 공론장(클럽, 신문)
- 인터넷의 발달
 - 사이버 공론장, 인터넷 공론장



공론장과 네티즌번역

- 개인블로그
- 다음 아고라
-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 뉴스프로



네티즌 번역의 사회적 의미

- 집단지성 필수 요소
- 공론장 활성화
- 전문번역자와의 역할 분담 문제



감사합니다.



인터넷 시대 비전문가 통번역 참여 현상

김 순 미
숙명여대

1. 서론

최근 지난 40년간 쌓아온 통번역 분야의 전문화와 대조되는 뚜렷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회 변화와 인터넷·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직접 통번역을 하거나 전문가의 번역에 대해 비평을 하는 등 통번역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비전문가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전문가들의 활약은 만화, 드라마, 뉴스 등의 번역, 각종 소프트웨어 로컬리제이션과 인도적, 사회참여 목적의 통역 봉사 등 매우 다양하다.

비전문가의 번역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자 국내외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국내의 비전문가 번역 연구는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영상번역의 양상과 연구 필요성(김순영, 김희정 2010), 이용자 선호도(박경리 2013), 전통 영상번역과 팬번역 자막의 차이(이지민 2015), 팬번역의 법적지위 보장(이상빈 2011), 팬자막 제작자의 역할(김호영·홍남희 2012), 팬자막 번역의 신뢰성(김가희 2015; 김가희·최릉우 2015) 등 주로 팬들이 행하는 오락 영상물 자막번역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팬자막을 넘어 다양한 이슈와 장르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어, 비전문가 통번역이라는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 비전문가들이 행한 연구와 그 경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연구를 중심으로 이 분야의 배경, 종류, 내용, 특징 등 전반적인 실체를 파악한 후 이 분야가 사회적·번역학적으로 어떤 중요성과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더 나아가 이에 기초해 지금까지 비전문가와와의 차이와 분리를 추구해 왔던 통번역계가 이 현상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국내연구 동향 분석

비전문가 통번역 연구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알려면 먼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국내의 비전문가 번역 연구는 김순영, 정희정의 2010년 연구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Fansubs)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고찰」이 최초이며 그 이후 뒤따른 연구들도 팬 자막번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팬 자막의 확대 가능성, 이용자들의 호응, 팬자막 전략의 전문 영역으로의 확산, 불법성을 뛰어

넘는 팬자막의 장점, 팬자막 번역가의 역할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킴으로서 팬자막을 위협으로 보기보다 기존 번역 체제에 기여를 하고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팬들의 영상 자막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전문가 연구는 최근 다양한 장르와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팬의 자막번역처럼 한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지기도 보다는 각 장르별 한두 가지 정도의 연구가 행해진 정도이다. 예를 들어, 게임 번역에 대한 팬들의 반응과 참여(이상빈 2012), 집합지성과 네티즌 번역 연구(이지민 2014), TED 영상물에 나타나는 문화관련 어휘 번역 양상(이지민 2014), 사회참여적 뉴스번역(강지혜 2012, 송연석 2014), 팬웹툰번역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친밀성(조성은, 조원석 2015), K-pop번역 양상(김민지 2016) 등이다. 이들은 각 장르(게임, TED 등 교육 콘텐츠, 뉴스, 웹툰, K-pop 등)에서 국내 최초 연구들이라는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제(기관 주도 비전문가 번역, 집합지성, 인터넷 커뮤니티 내의 공감대 형성, 사회참여 등)도 기존에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라는 데서 의의가 큰 연구들이다. 이를 통해 비전문가 번역은 기존 번역보다 품질이 낮은 주변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배경 지식, 환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정서적 교감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으로 전통 번역과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이제 위의 국내 연구와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비전문가 통번역의 종류, 배경과 동기, 내용을 정리한 후 이 분야의 번역학적, 사회적 중요성을 분석해보려 한다.

3. 비전문가 통번역 참여의 내용

3.1 비전문가 통번역 활동이란?

3.1.1 비전문가 통번역의 정의

인터넷 시대가 진행되면서 공식적인 언어간 중재(mediation) 교육을 받지 않았고, 공인된 자격증도 없으며 기관이나 학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번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 통번역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언어 능력과 문화적 소양, 장르적 배경지식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번역은 다른 많은 분야의 비전문가 활동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정보를 검색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장이 마련되었기에 가능했다. 영화나 TV, 교육적 콘텐츠, 뉴스, 게임, 웹툰, 노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와 번역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 시점에 전에는 소수의 특권층, 전문가들만 접근하고 다룰 수 있던 콘텐츠에 일반인도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번역 수요를 자발적으로 충족시키려는 단체나 개인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웹상에서 실시간 의견을 나누고 협업을 하며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수동적인 정보 수신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 콘텐츠의 생산 및 소비의 새로운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김순영, 정희정 2010).

이같이 전문가들이 하는 통번역과 대비되는 통번역은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비전문가' 등 수식어가 붙으나 각 상황에서 강조되는 점에 따라 규정하는 용어는 '자원봉사 통번역', '커뮤니티 번역', '클라우드 소싱 번역', '협업번역', '사용자제공 번역'(user generated translation) 등 다양하다.

3.1.2 비전문가 활동 분야

비전문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팬서빙(fansubbing)과 팬픽션(fanfiction), 뉴스번역, 종교의식 중재, 인터넷과 블로그를 통한 사회운동과 사회관계망 구축, 인도적 구호행위 지원, 커뮤니티 통번역, 전쟁과 갈등상황 통번역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다(Pérez-González & Susam-Saraeva 2012). 이 중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흔한 비전문가 번역은 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영상물의 팬번역이다. 기존 자막의 품질이 만족할 만하지 못하거나, 신속하게 사용자들에게 배포되지 않을 때, 혹은 배포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을 공유하고자 하는 열성 팬들이 번역을 하여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이상빈 2011: 121). 이와 같이 비전문가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지금까지 연구를 이끌어 간 것은 팬번역이었으나 비전문가 번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훨씬 광범위하며, 복잡한 사회적·기술적 맥락 안에 있다. 이제 이들 활동이 기존의 좁은 영역보다 얼마나 확장된 것인지 알아보겠다.

첫째, 비전문가 번역은 영화나 미국·영국 드라마 자막번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언어의 방향도 영한번역만 집중된 것이 아니다. 둘째, 비전문가 번역에는 오락물 뿐 아니라 지식이나 교육 콘텐츠, 즉 뉴스, 블로그, 웹사이트, TED(이지민 2014a) 나 MOOC 강의(Zhang & Mao 2013) 등을 대상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비전문가들 중에는 사회 변화와 개혁을 목적으로 뉴스(강지혜 2012; 송연석 2014)나 블로그 번역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광의의 '시민 저널리즘'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넷째, 비전문가들의 통번역은 열성 팬으로서 스스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번역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외부의 행정상 필요에 반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외부의 필요에 의한 통번역 중에도 위와 같이 행정상 필요에 의한 것 뿐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로컬리제이션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대상으로 번역가를 모집하고 번역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비전문가들은 독자 혹은 시청자로서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번역비평이나 분석, 오역비판 등을 하면서 번역될 콘텐츠의 선정, 번역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전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들 활동 별로 그 개인적 이유는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3.2 비전문가의 통번역 참여 동기

이들이 개인적으로 봉사나 참여를 결심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첫 번째, '흥미 공유'이다. 이 경우 콘텐츠 생산자들은 또 한편 다른 생산자들이 만든 자막의 소비자가 되는 구조로 예를 들어 한글 자막이 없거나 있더라도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 이를 스스로 제작하여 원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한다(김호영·홍남희 2012).

두 번째, '외국어 학습'이다. 전지구적으로 영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영어를 잘 하고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영어를 비롯 외국어 실력 향상이나 자기개발 등(김호영·홍남희 2012, Zhang & Mao 2013)도 번역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세 번째, '정치 참여'이다. 개인으로 통번역에 참여하지만 팬으로서의 오락 콘텐츠나 지식 콘텐츠를 유포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도구로 통번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경력과 커뮤니티 내의 인정'이다. 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이 기관의 주도에 반응할 때 그 환경에 대한 친숙함과 감정적 밀착, 인맥 쌓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협업하는 개인들에게는 통번역사로서 인정, 자격, 이력, 경험, 훈련 등 개인적인 이

력과 관련된 동기가 중요한 요소이다(Olohan 2012).

다섯째, '인도적 봉사'이다. 순수하게 인권증진이나 위기·재난 상황에서 봉사를 목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3.3 비전문가 통번역의 특징

지금까지 비전문가들 활동의 특징을 보면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올리는 경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번역을 하여 이를 알리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번역 방법은 기관의 통제가 없고 자신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적으로나 협업으로 행해지는 경우 형식을 벗어난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지만, 기관 주도의 번역인 경우 정해진 시스템 내에서 규칙을 따르며 행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관들이 배경지식과 환경에 대한 친숙함을 갖춘 이용자로서 비전문가들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면서 이들의 번역은 갈수록 협업화, 시스템화, 상업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비전문가는 주로 번역을 하고 전문가는 감수, 관리를 하는 체계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제작된 경우 이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효과도 거두며 비용도 절감한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4. 비전문가 번역의 발전 양상

위의 국내 연구와 전체적인 분석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보면 비전문가 통번역은 기관 주도, 상업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 모호 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히 국내에서는 개인이 주도하는 팬번역에만 관심이 모아졌으나 비전문가 번역은 인터넷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며 꾸준히 확대·변화되고 있다. 즉, 예전에는 팬들이 콘텐츠를 선정하여 번역하고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과정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기관에서 시작하는 번역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유, 개방, 협업 정신으로 무장하고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수가 늘자 업계가 점점 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O'Hagan 2011). Facebook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총 250,000여 명을 동원하여 70여개 언어로 매우 신속하게 번역을 실행하여 협업 번역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Désilets & van der Meer 2011). 대기업들의 무료 노동력 이용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Facebook은 온라인상 협업 번역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 특허를 신청할 정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이윤을 목적으로 비전문가의 노동력을 착취하려 했다가 보다는 사용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하려는 풍토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비전문가들은 실제 이용자로서 Facebook 환경을 잘 안다는 점에서 환경을 모르는 전문가 번역보다 더 나은 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Facebook 뿐 아니라 상업 기관 주도 번역의 경우 기관들은 주로 초벌 번역을 개인에게 맡기고 후에 감수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혼종적(hybrid) 모델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유저의 잠재의식 안의 기대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전반적인 관리를 받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Jiménez-Crespo 2011).

또 다른 비전문가들의 등장으로 나타난 또 다른 경향은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능력이나 업무 구분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행정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번역의 경우 전문가의 업무를 비전문가에게 분담시킬 수도 있고 양쪽이 협력할 수도 있으며, 비전문가는 번역을 하고 전문가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등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이 전문가와 비전문가 업무 구분이 어려워지고 협업이 증가하는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전문가들과 전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언어적 비전문가들은 통번역 전문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콘텐츠 환경에 익숙하거나, 디지털 능력이 뛰어나거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다양한 전문성을 소유하여 각자 한두 분야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활동 영역이 교차되고, 전문성이 모호해지는 것은 번역학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하려 한다.

5. 비전문가 등장이 번역학계에 주는 시사점과 사회적 중요성

그렇다면 최근 들어 비전문가들의 통번역 참여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중요성도 커지는 현상은 번역학계 전반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고 중요시 했던 '전문성'의 개념이 점점 모호해진다는 측면과 '업계와 이를 둘러싼 사회의 변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전문성 측면을 보면, 첫째, 지난 40년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전문화는 법조계나 의학계처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나 기관에서 통번역 교육을 받았고 통번역 경험이 있는가를 전문가의 기준으로 잡지만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비전문가들이 행하는 통번역을 전문가들의 업무와 완전히 구분하여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지금도 통번역계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협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비전문가 활동이 더 증가할수록 협업은 확대될 것이고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현실에서 양쪽의 차별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통번역은 그 성격상 타 분야와 관련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통번역은 언어(외국어와 모국어) 능력과 방법론적 지식만 습득한다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텍스트 관련 배경지식과 주제 전문지식, 즉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번역이 특정상황과 문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목적과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 행위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 분야는 언어전공 뿐 아니라 비언어전공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현재 번역시장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포함하는 통합 언어서비스를 요구하는 식으로 빠르게 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IT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 다양한 컴퓨터 보조 도구, 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수적인 환경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의미의 번역 자체는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IT관련 지식과 기술, 대인관계 능력, 마케팅, 관리 능력 등 다양한 업무능력을 지닌 번역가가 요구되고 있다(김련희 2011). 이렇게 볼 때 언어와 비즈니스, IT 능력을 지닌 인재들은 그런 능력을 언어 능력과 잘 융합한다면 통번역계로 진입이 쉬워진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통번역 전문가들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가장 차별화 되었다고 자부하는 영역인 통번역 기술과 언어 능력에 관한 측면이다. "사람들은 주변 문화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번역 기술을 채택하며 이와 같이 '모국어처럼 습득된 번역 능력'(native translation)이 있다"(Toury 1995: 254 재인용 Pérez-González & Susam-Saraeva 2012: 150)는 가설이다. 이에 근거하면 비전문가들도 어느 정도는 타고난 번역 능력이 있고, 책을 읽고 자막을 보면서 번역 능력을 키워 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비전문가들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자산인 영어를 여러 환경에서 습득한 사람들이며 후천적으로도 번역 자체를 어학능

력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습득된 번역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전문성이라는 것은 의사나 변호사들이 가진 것같이 개인적 능력이며, 일반인이 진입을 못하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통번역계의 현상을 보면 전문성이 한사람이 발휘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협업을 통해 하나의 전문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협력적인 전문성 측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해서 혼자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의 전문성과 경쟁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다음 사회적 측면의 영향력을 보자. 사회, 경제, 행정적인 필요 뿐 아니라 기술적인 뒷받침, 이주의 증가 등의 사회적 상황은 수요공급, 번역 프로세스, 중재의 패러다임, 소비자의 부상 등을 불러와 통번역계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결국 통번역 시장은 현대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그 수요를 충족하며 변화하며 다시 사회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번역의 원래 목적인 소통과 통합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변화의 물결을 타고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비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음을 보여준다. 요즘과 같이 SNS를 통해 누구나 정치적 활동을 하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상황에서는 비전문가들도 사회 주류세력들과 같이 번역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구나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나누는 세상에 한 발짝 다가가는데 비전문가들의 통번역이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업 주체들과 팬들은 협력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한 좋은 대안을 찾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되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코칭, 감수, 교정/교열은 전문가가 번역은 비전문가가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는 등 사업과 경제 문화에도 비전문가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문성을 추구해온 통번역계는 이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Web 2.0 시대에 나타난 도전은 출판, 교육, 언론, 글쓰기 등 인문학계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것이므로 통번역계의 반응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문가 반응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는 기본적으로 배척과 수용 두 가지 반응이 있다. 첫 번째는 전문가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비전문가들의 활동은 전문가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전망까지 어렵게 하는 위협으로 여기는 의견이다. 이것은 비전문가의 활동이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화에 대한 훼손이며 이 때문에 결국 이 분야의 전문가가 제대로 된 대우와 위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 이 위협을 용인하지 않으며 전문화의 벽을 더 공고히 하려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통번역 뿐 아니라 전문적 행위의 범위를 그 행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통합적이고 확장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새로운 현상을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변화의 물결을 타고 한 영역이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보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취하면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서로 배우며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이같은 물결은 이미 전문가 번역에 비전문가의 번역 방법이 반영 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자막번역계의 풍토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전문가도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해야 하며 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번역가는 기본적인 기술 이외에 일반인의 번역을 감수, 관리하는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통번역 이외 다른 전문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다. 김련희

(2011)에 의하면 오늘날의 번역 시장은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언어 산업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번역사의 역할은 과거와 같이 번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지화, 감수 및 편집, 요약하기, 전사하기(transcribing), 프로젝트 매니저 등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개 방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점과 영향력을 볼 때 비전문가 통번역은 배척하기 보다는 수용하여야 할 현상이고 전문성에 대한 제고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2) 「인터넷 상에서의 번역에 관한 고찰: 누리꾼들의 정치참여로서의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14(2), 1-33.
- 김가희 (2015) 「중국 팬서브, 공식자막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가?-외화 [어벤져스] 의 번역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61(단일호), 251-274.
- 김가희 최릉우(2015) 「중국 검열이 자막 번역에 미친 영향 연구 —영화 어벤져스의 자막 번역 양상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총론』36(2), 39-65.
- 김련희 (2011) 「학부 번역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통역과 번역』 13(2), 19-52.
- 김민지 (2016) 『K-pop 번역양상 연구 -주체와 전략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 김순미 (2012) 「온라인상 독자들의 번역 비평」 『번역학연구』 13(2), 7-40.
- (2013) 「겉텍스트를 통한 출판사의 문학번역 전략 홍보: 위대한 개츠비 번역방법 논란을 중심으로」 통번역 교육연구 통번역11(3). 5.-27
- 김순영, 김희정(2010)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Fansubs)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고찰」 『번역학연구』 11(4), 75-97.
- 김정우 (2004) 대학 교양 영역으로서의 번역 과목의 의의 —원격 교육 방법론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5(1) 25-53.
- 김호영, 홍남희 (2012) 「전지구적 미디어 텍스트의 온라인 유통과 자막 제작자의 역할: 미국 드라마 팬자막 (fansub) 제작자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23, 47-77.
- 박경리 (2013) 「미국 드라마 팬자막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 『번역학연구』 14(5), 117-141.
- 송연석 (2014) 「사회현상으로서의 제도적 번역과 제도권 번역- < 뉴스프로 > 사례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6(3), 37-58.
- 이상빈 (2011) 「팬 번역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12(4), 119-143.
- (2012) 「비디오 게임 현지화에 관한 소고 스타크래프트 2 현지화-한글화에 대한 팬덤의 논쟁을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16(1), 109-127.
- 이지민 (2014a) 「집합지성과 네티즌 번역 특징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통번역학연구』, 18(4), 141-166.
- (2014b) 「전통 영상번역과 팬자막 비교 연구: 문화 관련 어휘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2), 135-158.
- (2015) 「팬 자막과 전통 영상번역은 과연 다른가? 다중기호성을 반영한 영상번역 정의와 자막 형태, 자수 제한, 이국화 전략 탐구」 『번역학연구』 16(2) 165-186.
- 이한음 역(2010) 스마트 스윙 김영사: 파주 (Peter Miller (2010) McCormick &Williams: New York.)
- 정호정 (2013)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 동향—1999 년 이후 국내외 대표 학술지 분석」 『통역과 번역』 15(1), 235-256.
- 조성은 & 조원석. (2015) 「웹툰 팬번역 양상 연구-[신의 탑] 팬덤의 정서적 특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3), 239-263.
- 최수연 (2016) 『영상번역의 사회학적 연구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 황주영, 최서영(2010) 집단지성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 특성 분석: 위키백과와 지식iN에 대한 한미 비교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4), 258-301.

1. Bristol, UK: JISC, 1-64.

- Cabanellas, Guillermo (2014) *The Legal Environment of Translation* Routledge, NY.
- Cronin, Michael (2013)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Routledge, NY.
- DePalma, D., & Kelly, N. (2011) Project Management for Crowdsourced Translation: How User-Translated Content Projects Work in Real Life. *Translation and Localization Project Management: The Art of the Possibl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79-408.
- Désilets, Alain, and Jaap van der Meer. (2011) "Co-creating a repository of best-practices for collaborative translation."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10
- Dwyer, Tessa (2012) "Fansub Dreaming on ViKi: "Don't Just Watch But Help When You Are Free"." *The Translator* 18, no. 2 : 217-243.
- García, I. (2010) The proper place of professionals (and non-professionals and machines) in web translation. *Revista Tradumàtica*, 8, 1-7.
- Goode, Luke (2009) "Social news, citizen journalism and democracy." *New Media & Society*
- Jiménez-Crespo, M. A. (2011). From many one: Novel approaches to translation quality in a social network era.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10).
- Kelly, N., Ray, R., & DePalma, D. A. (2011). From crawling to sprinting: Community translation goes mainstream.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10).
- McDonough Dolmaya, Julie (2012) "Analyzing the crowdsourcing model and its impact on public perceptions of translation." *The Translator* 18.2: 167-191.
- Mikkelsen, Holly (1996). The professionalization of community interpreting. In *Global vision: Proceedings of the 37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pp. 77-89).
- Munro, Robert (2010) "Crowdsourced translation for emergency response in Haiti: the global collaboration of local knowledge." In *AMTA Workshop on Collaborative Crowdsourcing for Translation*, pp. 1-4.
- O'Hagan, Minako (2011) "Community Translation: Translation as a social activity and its possible consequences in the advent of Web 2.0 and beyond."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10
- Olohan, Maeve (2012) Volunteer Translation and Altruism in the Context of Nineteenth-Century Scientific Journal. *The Translator*, 18(2), 193-215.
- Pérez-González, L., & Susam-Saraeva, Ş. (2012) Non-professionals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Participatory and engaged perspectives. *The Translator*, 18(2), 149-165.
- Pérez-González, Luis (2014) *Audiovisual Translation Theories, Methods and Issues* Routledge, NY.
- Salzberg, Chris. "Translation and Participatory Media"
- Zhang, Weiyu, and Chengting Mao. (2013) "Fan activism sustained and challenged: participatory culture in Chinese online translation communities."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6, no. 1: 45-61.

세션 4

15:00-16:00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

좌 장: 조 성 은 (한국외대)

발표자:

오 미 형 (동국대) 글로벌 시장 속 한국 기업과 번역

서 유 경 (한국외대) 한국문화콘텐츠 번역의 사회적 역할

토론자: 허 지 운 (이화여대), 이 혜 승 (수원대)

글로벌 시장 속 한국 기업과 번역

오미영
동국대





- ◉ 손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 하나은행
- ◉ 마음으로 쓰는 카드 - 우리카드
- ◉ 즐거운 온라인 연산학습 - 샘샘아이
- ◉ 개운하게 맵다 - 해찬들 집고추장
- ◉ 형님 먼저 아우 먼저 - 농심라면
- ◉ 대한민국 아줌마는 버스보다 빠르다! - 케토티

글로벌화, 현지화, 글로컬라이제이션

- 한 국가의 경제 주체가 교역과 투자 및 여타 경제 활동을 통해 다른 국가의 경제 주체들과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 (Dunnun 1997)
- 진출한 해외 시장 환경에 적응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전략 (이순철 2012)
- 지방 고유의 독창성을 세계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소개하여 세계인들에게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되 현지풍토를 반영한 전략을 실행하는 전략.
- 소프트웨어 측면의 초점: 마케팅의 현지화 (김용규 2000; 심상렬 외 2005)

기업활동과 웹사이트

이윤추구



홍보
커뮤니케이션



웹사이트

- 홍보커뮤니케이션: 판매 촉진 + 대중의 우호적 태도 창출
- 웹사이트: 정보수집 v.s. 우호적 태도 창출

웹사이트 연구

- 접근성이 높은가
 -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것이 좋은가
 - 어떤 디자인이 효과적인가
 -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성이 있는가
- 주로 내용 혹은 디자인에 대한 것.
- 언어 차원의 연구는 미비 (cf: 이창수 2008, 장민호 2011, 이주은 2013 등)

웹사이트와 번역

Borrowing--Adaptation--Text Production

텍스트 관습, 언어사용 관습

해외 글로벌 기업 v.s. 한국 글로벌 기업

- 2014년 포춘 500 글로벌 기업 중 상위 10/ 한국기업 상위 10
- About Us/Company Overview: 제품 및 서비스 소개가 아닌 기업 소개
- 해외기업: 5,666단어 / 한국기업: 6,744단어

어휘: 동사

- 동일한 행위, 상이한 가치/의미 부여
- 해외기업: be (11.06%), help (5.29%)
국내기업: create, provide (각 5.1%),
achieve(3.02%)
- 정체성: we are proactive, ~ is a global group of...
- 준사역동사: Our focus is on helping customers make...
- 만들: Produce, develop/ create
- 제공: Provide/ offer, deliver
- 노력, 의지: Aspire, strive, want, hope

어휘: 형용사

- 피수식 명사의 가치에 대한 독자의 확신을 강화하고 생동감을 부여해 더욱 집중하게 만듦 (Larson 2004)
- 신뢰의 대상: 제품 / 기업 (reliable, trusted, respected, beloved, royal...)
- 일등: top, leading, best/ world class, top-class, first class, No.1
- 의지: 동사가 아닌 형용사의 활용 (unyielding passion, unfaltering commitment...)

문장: 기업을 주제로 하는 문장

- 주제 (theme): 무엇에 대한 문장인가.
- 기업을 주제로 하는 문장의 지시어:
기업명, we/ 기업명
We/ our company, the company
We at ~/ our affiliates

문장: 전치사구

- ◉ By ~ing: 해외(12) 한국(32)/ 용례 차이X
- ◉ Through: 해외(10), 한국(27)/ 용례 차이0
- ◉ With: 해외(10), 한국(17)/ 용례 차이0
- ◉ Based on: 해외(1), 한국(11)/ 용례 차이0

나가며...

- ◉ Raison d'etre
- ◉ Faithful to the text as a whole
- ◉ Not just linguistic, but linguistic culture meditation

한국 문화콘텐츠 번역의 기능적 역할 러시아어 번역을 중심으로

서 유 경
한국외대

1. 서론

1990년대 후반 한국 대중문화가 활성화 되고 해외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2000년 전후로 본격적인 한류가 확산되었다.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도 이 시기부터 점차 국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K-pop,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해외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다가, 2001년 제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문화 수출과 한류를 바탕으로 문화 기술(CT, Culture Technology)을 21세기형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하게 되고, 2002년에는 미래국가전략산업 실행기구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이 설립하게 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차원에서 창조적 경제를 강조하면서 점차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으로 이행 또는 확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문화콘텐츠 산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란 문화와 영어의 '내용물'을 의미하는 콘텐츠(contents)의 합성어로, 여기서 콘텐츠는 원래 서적이거나 논문 등의 내용, 목차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문화 기술이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되면서 드라마, 대중가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같은 서로 다른 이질적 장르로 구성된 한류 중심 소재 영역들을 통칭하게 된 것이다(김평수, 2014: 16-18). 2000년대 이후 문화 콘텐츠가 이슈로 부상하는 이유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개인용 PC 보급이 확산되고, 영화, 음악, 출판물을 비롯한 무형의 문화 상품이 본격적으로 디지털화됨에 따라 문화 상품의 제작, 유통, 향유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과 한국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을 들 수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대표적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성화 되고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번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쏟는 관심에 비해 정작 그것의 번역에는 관심이 너무나 미미한 현실이다. 일례로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번역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부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분야에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과 같이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문학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특히 매스미디어 분야의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 번역의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번역은 곧 비용이며, 비용은 곧 절감되어야 할 요소라는 인식으로 대부분의 영화사나 제작사들이 번역을 현지 업체 쪽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우리 나라 문화콘텐츠가 잘 못 번역되어 해외에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 되고 있는데, 그 일례로 아래의 뉴스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

“태국에서 우리 영화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요. 그런데 영화 제목을 잘못 번역하는 경우

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략) 장혁 씨가 주연을 맡았던 '화산고'는 'Volcano high'라고 표기돼있는데요. 네, 어이없지만 화산의 volcano와 고등학교를 뜻하는 '高'가 high로 그대로 번역된 겁니다. 또 김원희, 이미숙 씨 주연의 '울랄라 시스터즈'는 발음 나는 대로 옮긴 'Oh! Lala sisters', 조인성 씨 주연의 '남남북녀'는 엉뚱하게도 'Love impossible'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략)."

(출처: ystar news 2006. 10. 04³⁾)

위에 인용된 뉴스에도 언급되었듯이 해외에 공급된 한국 문화콘텐츠는 해외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문학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목표 언어문화권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 높은 번역이 필요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텍스트는 다른 분야의 텍스트와 달리 복잡한 양상의 번역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주로 기능적으로 충분한 도착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화용적 번역 문제, 이문화간 번역문제, 언어유희와 같이 특정 텍스트에 나타나는 텍스트 특수적 문제 등에 대한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어와 대상 외국어를 잘 안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언어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문법이나 어휘와 같은 두 언어의 언어 체계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번역 전환을 넘어 문체, 문화, 기능, 효과 등을 고려하는 번역을 추구하고자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문화콘텐츠 번역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콘텐츠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르별 텍스트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번역 문제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번역 전략을 러시아어권 현지 독자가 기대하는 한국문화콘텐츠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한국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1) 한국 문화콘텐츠 발전 배경

- 1990년대 후반: 한국 대중문화 활성화와 해외진출 → 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국내에서 사용되기 시작
- 2000년 전후: 한류의 본격화
- 2001년 8월: 2001년 제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 문화 수출과 한류를 바탕으로 문화 기술(CT, Culture Technology)을 21세기형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
- 2002년 미래국가전략산업 실행기구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 설립.

2) 문화콘텐츠가 이슈로 부상하는 이유

2.1)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화 상품 제작·유통·향유 방식의 변화

-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개인용 PC 보급 확산
- 영화·음악·출판물을 비롯한 무형의 문화 상품의 제작·유통·향유 방식이 본격적으로 디지털화됨에 따라 이들을 통칭할 수 있는 용어의 필요성 대두

2.2) 한국산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 활성화

- 2000년 전후: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큰 호응
-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기관 설립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32&aid=0000015064>

2.3) 한국 문화콘텐츠 번역

1. 목적: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 활성화!

2. 번역 대상 분야

- ① 영화·비디오 (영화)
- ② 음악·게임 (가요, 전통음악 등)
- ③ 출판·인쇄 (문학, 인문학 등)
- ④ 방송 영상물 (드라마, 다큐멘터리, 토크쇼, 예능 등)
- ⑤ 문화재 관련 자료 (한국문화재 소개 자료)
- ⑥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만화책, 시사만화, 만화영화, 캐릭터)
- ⑦ 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 공익광고, 상업광고, 지면광고 등
- ⑧ 한국의 문화 관련: 음식, 의상, 생활, 사회시스템 등
- ⑨ 문화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축제 관련 자료

3. 한국 문화콘텐츠 러시아어 번역 사례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번역 사례는 연구자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도 1학기에 진행했던 한-노 문화콘텐츠 번역 수업을 통해 얻은 번역 결과물을 분석한 것이다. 번역에 참여한 수강생은 총 9명이었다. 번역 대상 자료는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출판물, 오디오, 비디오 자료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주요 장르별 세부 번역 텍스트]

장르	번역 자료
1. 광고·공연	공익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부패 청렴문화 캠페인: '청렴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2. 한국 소개	한국의 음식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 영상자료 번역
3. 한국 소개	한국 홍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영상 자료 번역
4.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시사만평 - 시사만화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란법 • 땅콩회항
5. 출판·인쇄 (문학 분야)	한국 문학: 시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시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다' • 윤동주 '서시', '별 헤는 밤'
6. 한국 음악 (전통음악 등)	한국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가 • 밀양 아리랑
7. 방송 영상물 (드라마)	한국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이름은 김삼순 • 착하지 않은 여자들

8 음악 (K-pop, 가요)	한국 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범수 '보고 싶다' • 임재범 '고해' • 이적 '하늘을 달리다'
9. 방송 영상물 (토크쇼, 예능)	한국 TV 방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상회담 '각국의 흔한 거짓말'
10. 광고 (상업광고 -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 광고 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제품 소개 '각질 제거제'

번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9명의 학생 번역사가 1인 1조, 2인 1조, 또는 전체가 한 조가 되어 문화콘텐츠 자료를 번역하였다. 번역 초안이 제출되면, 연구자가 번역 초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feed-back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번역사가 수정하여 최종 번역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번역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3.1 한노 문화콘텐츠 번역의 제 문제

번역의 문제란 기능적으로 충분한 도착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번역사가 번역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로 객관적 또는 간주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문제(Nord 1997a: 141)와 화용적, 문화적, 언어적 번역 문제 + 언어 유희와 같이 특정 텍스트에만 나타나는 텍스트-특수적 번역 문제 등(정호정 2007/2011: 163)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광고카피의 수사법(대조)

부탁-청탁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선물-뇌물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단합-담합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정과 의리-부정과 비리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볼 땐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청렴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2) 한국홍보 텍스트의 문화 간극 중개

- ① 동양철학의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이 담긴 음식
- ②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흑(黑) 백(白)
- ③ 비빔밥의 재료인 밥, 고추장, 나물, 미나리, 고사리, 콩나물, 육회, 계란 등은 음과 양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으며 노랑색을 중심으로 파랑, 하양, 빨강, 검정 등 오행을 의미하는 5가지 색깔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④ 제주만의 독특한 화산지형 오름을 활용하여
- ⑤ 고유명사
 - 지명: 성산 일출봉, 곶자왓, 비자림, 섭지코지
 - 제주여성 김만덕
 -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하늘을 덮은
 - 제주 들불 축제
 - 정월대보름
- ⑥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빛깔 제주인의 '정(情)'
- ⑦ 언어유희: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지세라는 뜻의 '섭지', 코끝처럼 바닷가로 불쑥 튀어나온 땅이라는 뜻의 '코지'

3) 시사만화 속 함축된 배경지식과 언어유희

		<p>말아먹고 (경제를 말아먹다. '재물 따위를 송두리째 날려 버리다' 말아먹다 vs '국물에 타서 먹다' 말아 먹다) 조작하고 - (여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기치고 - (국민 박근혜 공약 파기)</p>
		<p>농단해도 - (인사권 비선 실세 정윤희 사건) 찍소리 못하면서..... 왜 나만? 땅콩 내꺼 (재벌 2세의 기업 인식)</p>
		

4) 문학 장르적 특성 살리기: 한국 시의 내재율 vs 러시아의 시의 외재율

- ① 내재율의 한국시 vs 외재율의 러시아 시
- ② 러시아시의 특징
 - 리듬과 음악성이 매우 중요
 - 두운과 각운, 특정 모음과 자음이 의도적으로 비치되면서 음악성이 생겨
 - 러시아어 시에는 '인토나치아'라고 일반적인 어조와는 매우 다른 과장된 억양
 -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시로 인식됨
- v 어느 러시아의 문인의 지적: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 시를 읽고 있자니 도저히 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술 번역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5) 노래 번역: 노래의 음절과 러시아어 어절 및 강세 일치

6) 자국화 vs 이국화, 고유성 vs 효과성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번역

- ① «Меня зовут Ким Самсун»: 김삼순을 러시아어로 음차
- ② «Меня зовут Ким Чхи»: 김삼순 대신 '김치'로 번역. 의외성, 놀람, 웃음 효과 목적
- ③ «Меня зовут Матрёна»: 러시아어 이름 '마트료나' 차용 번역. 촌스러움 효과 목적

4. 현지 독자의 기대하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기능적 역할: 러시아어권 독자 대상 설문조사

4. 1. 설문 대상 자료 선정

- ① 문학(시): 류시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다'
- ② K-pop: 임재범 '고해'
- ③ 전통 음악: '밀양 아리랑'
- ④ TV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4. 2. 설문 조사 진행

러시아어권 현지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설문지 배포하여 총 61명으로부터 설문 응답 수거함

4. 3. 설문 결과

- ① 응답자 성별: 남성: 24명 (39.3%), 여성 37명 (60.7%)
- ② 국적은? 러시아 44명 (72.1%), 기타 CIS 17 (27.9%)
- ③ 현재 거주지는? 러시아 30 (49.2%), 기타 31(50.8%)
- ④ 한국어를 아는지? 모른다 24명 (39.3%), 안다 37명 (60.7%)
- ⑤ 한국문화 콘텐츠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지? 있다 49 (80.3%), 없다 12 (19.7%)
- ⑥ 한국문화 콘텐츠의 어떤 장르를 접해 보았는가? (복수 응답)

장르	K-pop	영화	TV 드라마	문학작품	TV 예능 프로	기타
응답 수 (총 116)	35 (21%)	46 (27.7%)	41 (24.6%)	9 (5.4%)	32 (19.3%)	3 (1.8%)

한국 문화콘텐츠를 접한 매체? (복수 응답)

매체	TV	영화관	인터넷	해적판 DVD	기타
응답 수 (총 78)	14 (17.9%)	6 (7.7%)	44 (56.4%)	3 (3.8%)	11 (14.1%)

상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지면상의 제한으로 학술대회에서 발표 예정

(5) 맺음말

한국 문화콘텐츠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주로 기능적으로 충분한 도착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화용적 번역문제, 이문화간 번역문제, 언어유희와 같이 특정 텍스트에 나타나는 텍스트 특수적 문제 등에 대한 문제 등이 많았다. 또한 번역에서 텍스트 효과의 증가에 대한 이해 역시 번역 결과물의 완성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국어와 대상 외국어를 잘 안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언어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문법이나 어휘와 같은 두 언어의 언어 체계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번역 전환을 넘어 문체, 문화, 기능, 효과 등을 고려하는 번역을 추구하고자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문화콘텐츠의 번역은 양방향 언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적 중개 능력, 번역 방법론에 대한 지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문화콘텐츠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르별 텍스트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번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번역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어권 현지 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 잠재적 독자가 기대하는 한국문화콘텐츠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현지 독자들은 한국 문화적 고유성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국 문화콘텐츠 번역에 기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번역에서 나타났던 번역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번역 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김영순 외. (2010). 『문화 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김평수 외. (2012). 『문화콘텐츠 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백승국 지음. (1999).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최연구. (2006).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정호정. (2008/2011). 『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한국문화사.

김평수. (2014).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온라인사이트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콘텐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4941&cid=42219&categoryId=51128>

세션 5

16:10- 17:40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

좌 장: 이 영 훈 (고려대)

발표자:

최 효 은 (이화여대) 번역사(史) 연구의 학제성과 그 접근방법

최 희 경 (고려대) 영한번역에 나타나는 어휘 차용 연구 및 교육적 함의
-경영 전문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예비 연구-

김 도 훈 (부산외대) 플립러닝 활용 통역 수업 설계 및 운영

토론자: 김 준 한 (고려대), 이 현 경 (한국외대), 이 주 연 (한국외대)

한국통역번역학회 2016년 봄 학술대회

번역사(史) 연구의 학제성과 그 접근방법

최효은(崔曉恩)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I. 서론

바스넷(Bassnett 1980: 75)은 현대 번역이론가들은 번역사(史)⁴를 핵심 연구분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베르만(Berman 1984: 12, Santoyo 2006: 12 재인용)은 현대 번역이론의 제1과제는 번역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번역학 내 번역사 연구의 실재는 이 같은 주장들로부터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윌리엄스와 체스터만(Williams & Chesterman 2002: 1-30)은 번역학 연구를 12개의 분야로 세분화 한 바 있다. (1) 텍스트 분석과 번역, (2) 번역 품질 평가, (3) 장르별 번역, (4) 멀티미디어와 번역, (5) 번역과 테크놀로지, (6) 번역의 역사, (7) 번역 윤리, (8) 슬어 및 용어론, (9) 통역, (10) 번역과정, (11) 번역교육, (12) 번역 실무론 등이 그것이다. 번역학의 제도화와 함께 대부분 분야가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해 가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번역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그만큼의 활기를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번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그것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활성화할 것을 목적으로, 번역사 연구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판단되는 그것의 학제적 성격을 그 연구의 성격과 환경, 과정 및 목적의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번역사 연구가 가지는 학제성을 고려한 연구 수행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논의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번역사 연구의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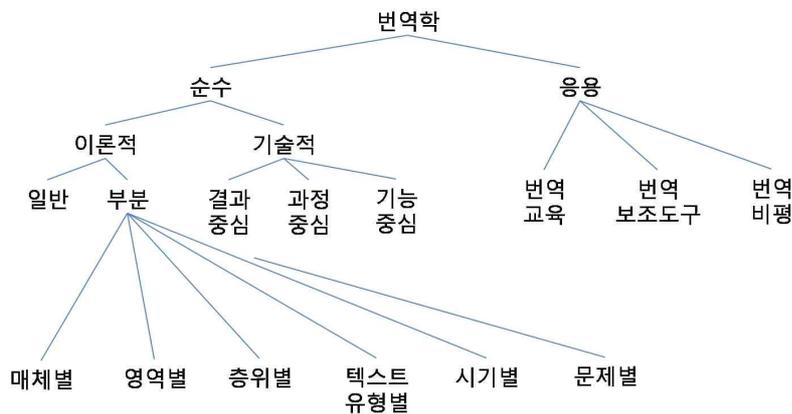
핀은 번역학이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독립하는 시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받

4) 본고에서 ‘번역사’는 ‘translation history’(翻譯史)를 가리킨다. ‘translator’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번역자’(翻譯者)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는 논문인 홈즈의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번역학의 명칭과 본질, Holmes 1972/1988)의 번역학 연구 개념도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Pym 1998: 1-4). 홈즈의 개념도가 제안하는 번역학 연구의 범위와 체계 안에서는 '번역에 대한 역사연구'(historical study of translation)라고 총칭할 만한 연구분야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림1> 홈즈의 번역학 연구 개념도 (Toury 1991: 181)

물론 핼은 홈즈의 개념도에 따라 기술적(descriptive) 연구에 속하는 모든 연구가 자동적으로 역사연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역사비평(historical criticism)과 같은 비기술적 연구뿐 아니라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 즉, '번역사(특화) 이론'(specific theory of translation history)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Pym



1998: 2).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번역사 연구를 시도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번역에 대한 역사연구'라 총칭할 만한 연구분야의 부재, '번역사(특화) 이론'의 부재 등으로 인해, 번역사 연구자들은 번역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A, 번역의 기능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B 등의 방식으로 여러 방법론과 틀을 건너 다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Pym 1998: 1).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우즈워스는 번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번역사가(translation historian)의 과업을 좀 더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in a more explicit and systemic manner)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Woodsworth 2001: 100).

핼자는 핼이나 우즈워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번역사 연구에 적합한 과거 시대의 번역 혹은 역사적 번역(historical translation)을 발견하여도 해당 대상에 대한 연구의 성격과 정체를 드러낼 기반이 마땅치 않아 연구의 설계와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번역학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던 1990년대 초, 스넬-혼비는 "번역학이 낡은 예술을 위한 새로운 학문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바 있다(Snell-Hornby 1991, Stolze 2011: 5 재인용). 이 같은 물음은 당시 번역학 연구의 주된 대상이 과거에 이루어진 번역이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번역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역사연구임을 표명하거나 특화된 이론적·방법적 틀을 찾을 필요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학이 빠르게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번역학 연구자들은 과거의 번역뿐 아니라 동시대적이고 보다 실용적인 번역들을 다루게 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번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표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칭과 방법적 요소들을 포함한 이론적 틀을 함께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반대로 명시적인 틀 없이 이루어져 온 전통적인 역사적 차원의 연구들은 현대 번역학의 다른 연구들과 구별하여 그 성격과 정체를 드러낼 기반이 애매해진 것이다.

이처럼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의 명시적 정립과 체계화는 번역사 연구가 실제 수행되기 위한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번역학계에서 그 같은 논의는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점을 살펴보고, 필자의 관점에서 내용적인 측면의 핵심을 이루는 것들을 IV. 번역사 연구의 학제성 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III. 번역사 연구의 이론적 논의의 현황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국내 현황은 시론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로는 유명우의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2002), 김정우의 “한국 번역사 논의의 전제”(2005)와 “한국 번역사의 시대구분”(2008) 등이 있다. 두 학자 모두 2000년대 이후 국내 주요 번역학회들이 형성되며 번역학이 독립학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던 시기⁵⁾에 번역학 관점에서 번역사를 구성하고 기술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표기수단, 즉, 번역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중심으로 번역사를 파악하였고,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한국 번역사의 시대구분을 시도하였다. 김정우는 번역언어 외에도 직역과 의역 등 번역전략, 편집상 원문과 대역체재(體裁)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번역체재(體裁), 종교, 문학, 실용 등 주제분야와 관계된 내용적 측면 등에서도 시대구분의 인자를 발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지만, 주목할 만한 요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김정우 2008: 43-64).

유명우(2002)와 김정우(2005, 2008)의 논의를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포함하는 이유는 두 연구자 모두 핼(Pym 1998)의 번역사 연구방법론을 인용하는 등 연구방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번역언어를 중심으로 번역사를 파악하여 시대구분을 시도하는 등, 두 학자 고유의 번역사관(翻譯史觀)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번역학계의 경우 번역사 연구에 관한 논의는 소수의 중견 연구자들에 의한 시론 단계라고 한다면, 해외 번역학계의 논의 현황은 훨씬 더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해외의 번역학 관련 주요 사전·참고류를 보면 상당수가 ‘번역사’를 표제로 다루고 있다. 베이커가 편집한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Baker 2001; 2009), 윌리엄스와 체스터만의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번역학 연구의 길잡이, Williams & Chesterman 2002), 강비어와 들슬레어의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번역학 핸드북, Gambier & Doorslaer 2010), 밀란과 바트리나의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라우트리지 번역학 핸드북, Millán & Bartrina 2013), 샤펬의 *The Encyclopedia of Applied Linguistics*(응용언어학 백과사전, Chappelle 2013) 등이 ‘translation history’ 혹은 ‘history of translation’을 표제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사전류의 한계로 인해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번역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들을 제공한다.

5) 한국통역번역학회(KSCI)는 1998년에 창립하여 1999년에 학술지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현 『통역과 번역』) 창간호를 발행했고(<http://www.ksci.or.kr/>), 한국번역학회(KATS)는 1999년에 창립하여 2000년에 『번역학연구』 창간호를 발행하였다(<http://www.kats.or.kr/>).

번역사 연구에 관한 방법적 논의를 특집으로 기획한 학술지, 논문집의 사례도 적지 않다. *Meta*(메타)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 두 차례에 걸쳐 번역과 역사에 관한 특집호로 다루었고, 이 두 차례 특집호의 편집을 맡은 바스탱은 2006년에는 방디아와 함께 *Charting the Future of Translation History*(번역사의 미래를 논하다, Bastin & Bandia 2006)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편집·출간하였다. 2012년에는 *Translation Studies*(번역학 연구)에서 5권 2호를 “번역사 방법론 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2013년에는 *MonTI*(몬티)에서 5권을 “번역학 내에서의 번역사 연구: 이론과 실제에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2014년에는 *The Translator*(번역자)에서 20권 1호를 “번역사 이론과 방법론: 학제적 접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각각 특집호를 기획·발행하였다.

해외 번역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 가운데 주목할 수 있는 점이 바로 번역사 연구가 가지는 학제적 특성에 관한 인식과 논쟁이다. 이 점을 번역사 연구의 학제적 성격에 대해 필자가 가지는 견해 및 관찰과 더불어 다음 부분에서 상술 하도록 한다.

IV. 번역사 연구의 학제성

1. 연구의 성격 차원: 이중의 학제성

번역사 연구에 내재한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은 두 가지 차원의 학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연구대상인 번역을 역사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번역학과 역사학이 형성하는 학제성이다. 다른 하나는 번역이라는 절차적 특성과 해당 번역이 속하는 주제분야가 형성하는 번역학과 (주제분야) 관련 학문 간의 학제성이다. 이 같은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번역사 연구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업이 된다.

2. 연구의 환경 차원: 국내 번역학 연구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대 번역학 연구는 어문학계열 학과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전문대학원이 중심이 되는 번역학과 혹은 통역번역학과⁶⁾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도 번역사 연구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않다.

전자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에 뿌리를 두고 현대적인 경향들을 진단하는 가운데 수용하는 중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통·번역교육, 전문번역(specialized translation), 통역과정 등에 대한 실험연구 등 동시대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실용적 목적의 연구가 주류인 가운데, 독립 학문분과로서의 성숙과 정체성 수립을 위해 번역사 연구를 포함한 전통적인 차원의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모색하는 중이다. 통역번역학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⁷⁾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⁸⁾에 모두 통·번역의 역사에 관한 선택과목이 교과

6) 번역학과와 통역번역학과를 맥락에 따라서는 분리하여 지칭하기도 하겠으나, ‘번역학과’만을 언급하여도 대체로는 둘 모두를 가리키는 것임을 주지해주기를 바란다. 이 점은 번역사 혹은 통·번역사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번역사’라는 명칭을 둘 모두를 가리키는 통합적인 명칭으로 사용한다.

7)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http://gsti.ewha.ac.kr/>) 박사과정에는 ‘통번역의 역사’(History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이라는 교과명의 선택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과목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문헌적 정보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점을 방증한다.

다시 말해 전자의 연구자들은 언어학, 어학, 혹은 문학 등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독립학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번역학의 의의를 수용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후자에게 있어 번역학은 독립학문으로서의 의의뿐 아니라, '독립학과'로서의 자각도 포함되어 있다.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번역학을 단순히 관심 연구 분야로서만이 아니라 통역이나 번역의 실무자로서 활동하면서 그것에 학문적 정체성을 둔 번역학과 연구자에게 있어 번역사 연구는 좀 더 긴요한 실존적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번역사 연구에 학문적 이상의 동기를 가진 번역학과 기반의 연구자들은 최소한 현재로서는 동시대적인 연구가 주류인 연구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연구를 실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형식지(explicit knowledge)의 부재, 즉, 번역사 연구에 관한 명시적인 이론적 틀의 부재 뿐 아니라 암묵지(tacit knowledge)의 부재, 즉, 관련 연구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전수가 원활하지 않음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번역사 연구는 방법적으로는 그간 어문학과 계열의 연구에서 주로 행해온 전통적 접근방법의 연구와 좀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사 연구에 있어 번역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연구에 관해 암묵지 차원의 지식을 보다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존 어문학과 계열의 연구와 독립학과로서는 신생 '학문분과'이기도 한 번역학과 계열의 연구가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과정 차원: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김정우는 번역사의 구성은 자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론과 사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2005: 141). 그리고 그 이유는 번역사의 내용을 이룰 수 있는 번역 자료가 이미 국어사나 중세 국어 등 국어학의 관련 분야에 상당한 수준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국 통번역사를 쓰기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 및 후기에 걸친 통역의 역사를 개관한 김남희(2012a, 2012b, 2014)도 해당 연구의 목적의 하나로 그간 국학계와 사학계가 이루어 놓은 연구성과와 사료를 소개하는 것을 들었다. 김남희의 경우도 이미 타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가 번역사 구성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단권 성경주석』이라는 1930년대 출간된 성경주석번역서의 역사적 의의를 검토하기 위한 맥락으로서 근대성경주석번역사와 근대기독교출판번역사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맥락을 구성을 위한 자료로서 도서관학과 연구자에 의한 연구인 『한국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 1882-1945』(김봉희 1987)를 비롯하여 신학계의 연구인 『한국

를 종합하여 동서양의 통번역사를 개괄하고 통번역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통해 통번역 활동과 통번역사의 시대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시대별 공시적 연구를 통한 각 문화권별 통번역의 양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통번역의 올바른 방향을 탐구해보는 것을 교과 목적으로 한다.”

- 8)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http://gsit.hufs.ac.kr/>) 박사과정에는 ‘통역/번역의 역사’(History of Translation/Interpretation)이라는 교과명의 필수선택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통역/번역의 역사에 대한 개괄과 함께 전체 역사에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시기들을 고찰해봄으로써 사회전체의 역사 및 문화 발달에 있어서 통역/번역의 역할을 조명해보고, 통역/번역사들이 전체 사회/경제/정치/문화의 발달에 미친 역할의 차이에 대한 국가별 조망도 함께 다룬다.”

기독교문화운동사』(이만열 1987), 『대한기독교서회 백년사』(이장식 1984), 『한국기독교신문·잡지백년사 1885-1945』(윤춘병 1984) 등의 연구를 적극 활용하였다. 즉, 필자의 연구대상이 속하는 주제분야의 학문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연구성과를 통해 관련 번역사 맥락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핼은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번역사 연구방법)에서 번역사 연구방법으로 번역고고학(translation archaeology), 역사비평(historical criticism), 설명(explanation)을 구분한 바 있다. 그 가운데 번역고고학은 자료수집에 관계된 연구로서 복잡한 탐사 작업을 필요로 하는 매우 고된(great self-sacrifice) 조사 작업임을 지적한 바 있다(Pym 1998: 5).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후발학문인 번역학은 번역고고학에 해당하는 조사의 상당 부분을 이미 인근 관련 학문들에서 이루어놓은 연구성과를 활용함으로써 대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4. 연구의 목적 차원: 번역학을 위한 연구 vs 타 학문을 위한 연구

핼은 번역사는 국제관계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Pym 1998: vi), 이 같은 관점은 번역사 연구가 단지 번역학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전제한다. 런들은 “Translation as an Approach to History”(역사에 대한 접근으로서의 번역, Rundle 2012)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번역사를 이야기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전제하게 되는 팽배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바로 (1)번역사는 반드시 번역학이라는 준거의 틀 안에서 ‘번역사의 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나는 번역학 내 번역사 연구자들이 잠재적으로 대단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다른 대안을 고려해보기를 희망한다. J. F. 케네디의 수사를 빌리자면, 역사가 번역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2)번역이 역사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Rundle 2012: 239)

여기에서 런들은 두 가지의 연구목적을 대비시키고 있다. 하나는 번역사 연구를 통해 번역사 자체의 구성과 기술에 기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을 통해 연구대상이 된 역사에 관한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런들은 전자의 연구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주제분야를 막론하고 편재하는 사회·문화 현상으로서 번역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와 역사를 들여다 보는 창으로서의 번역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올로한(Olohan 2014)도 번역사의 연구목적은 비슷하게 구분한 바 있다.

번역사는 (나)역사 속에서의 번역의 역할을 관찰하거나 조사하는 것 혹은 (가)번역 자체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역사 연구에 관한 이러한 상이한 관점은 연구 목적에서나 접근, 개념, 방법과 학문적 교섭상 대 등에서 차이를 만든다.

(Olohan 2014: 9)

올로한의 (가), (나)는 각각 런들의 (1), (2)와 상통한다. 런들은 (1)이 아닌 (2)를 강조함으로써 두 가지의 목적을 배타적인 관계로 보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Hermans 2012: 244, St-Pierre 2012: 240, Delabastita 2012: 246). 올로한은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하지는 않았지

만, 두 가지 목적을 선택적인 관계, 즉, 상이한 연구를 수립하게 하는 근거로 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들과 유사하게 번역사 연구의 목적을 구분하지만 그 둘을 배타적이거나 선택적인 관계가 아닌 절차적인 차원에서 보는 견해도 있다.

번역사는 미술사 혹은 문학사와 다를 것이 없다. 미술이나 문학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유기적 통일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들이나 관련 담론들을 직조하여 어떤 일련의 구별 가능한 연속을 구성한다. 이 연속체가 그 자체의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해당 연구자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담론과 유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비교적 독자적인 양상을 보이는 이 연속체를 구성하는 것이 주어진 역사 속에서 문학이나 미술의 함의를 읽어내는 것의 선결조건이 된다는 데에는 역사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번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번역사 연구도 이런 관점에서 두 단계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1단계]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번역이 어떠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2단계]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Hermans 2012: 244)

헤르만스는 번역사 연구의 두 가지 목적을 배타적이거나 선택적인 관계가 아닌 절차적인 관계로 파악하였다. 먼저 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번역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맥락 속에서 번역이 한 역할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번역사 연구는 그 목적 차원에서도 번역에 대한 일반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즉, 번역학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번역사 연구자가 택한 역사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런들은 특히 후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번역사 연구의 학문적 유익을 적극적으로 역설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연구를 둘러싼 환경이나 자료수집 등 연구과정, 그리고 좀더 본질적인 차원인 연구 성격이나 목적 차원에서도 학제적인 특징을 보이는 번역사 연구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지 필자의 제안을 밝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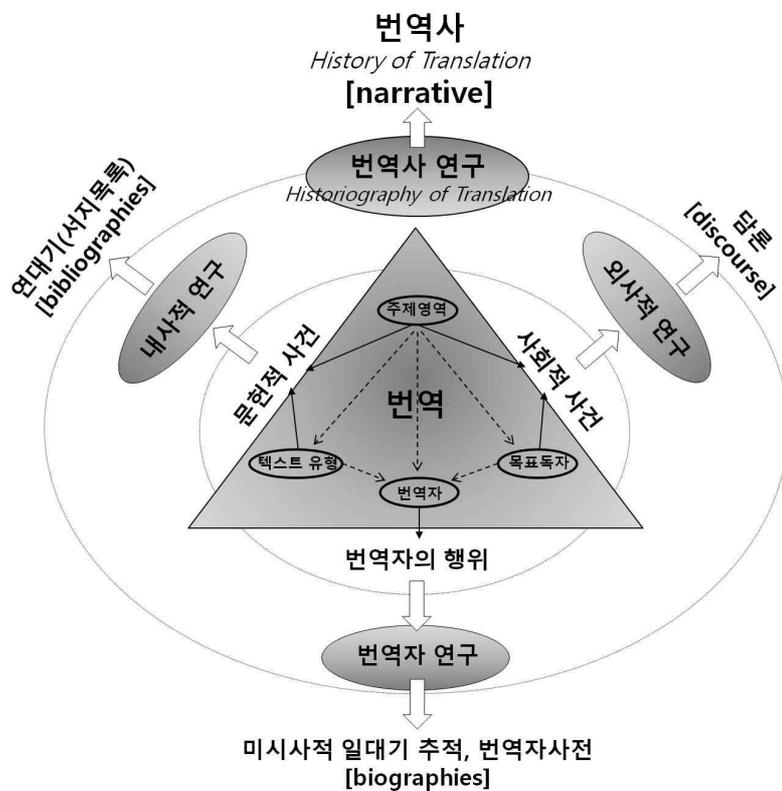
V. 번역사 연구의 접근방법

필자가 제안하는 번역사 연구(translation historiography)의 접근방법, 혹은 연구 수행을 위한 체계는 내사적 연구, 번역자 연구, 외사적 연구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내사적 연구가 좁은 의미의 번역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번역사 연구의 목적에 따르자면, 내사적 연구가 번역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연구, 즉, 번역학 고유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라고 하겠다. 반면 외사적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번역을 통해 해당 역사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번역에 대한 조명을 통해 번역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번역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래 내사(internal history)와 외사(external history)라는 구분은 언어사 기술방식으로, 김정우(2008: 39)가 “한국번역사의 시대구분”에서 이 같은 방식을 번역사 연구에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김정우에 따르면 언어사에 있어 내사란 언어 자체의 역사이고, 외사란 언어를 둘러싼 언어 주변의 역사라고 하였다.

이 같은 정의를 번역사 연구에 적용한다면, 번역사에서의 내사란 번역 자체의 역사이고, 외사란 번역을 둘러싼 번역 주변의 역사라고 하겠다. 직관적으로 볼 때 이 같은 개념 구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번역이라는 현상 혹은 행위 혹은 활동은 그 자체가 복합적인 자질을 가지기 때문에 언어·텍스트적, 즉, 내적 접근만으로도, 사회적, 즉, 외적 접근만으로도 그것의 역사성, 역사적 가치를 적절하게 고찰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번역사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이 같은 개념 구분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점이 있다. 무엇보다 내사와 외사 간의 유기성을 유지한 채 하나의 각각의 영역에서 연구의 초점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점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이 같은 제안에 기초하되 번역이라는 연구대상의 내재적 특징에 기초하여 번역사 연구에 있어서의 내사적 연구와 외사적 연구를 규정하였다.



<그림 2> 번역사 연구의 체계

먼저 필자는 역사연구 대상으로서의 번역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사건이냐 할 때,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분야, 텍스트유형, 번역자, 목표독자를 주요 요소들로 하는 사건이다.

이것을 필자의 연구대상에 적용한다면 『단권 성경주석』(1934)이라는 번역 사건은 기독교라는 주제분야, 성경주석서라는 텍스트유형,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번역할 수 있는 번역자, 그리고 성경 및 성경연구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때 주제분야는 번역이라는 사건의 차원에서는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이지만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는 일종의 결정적(determining) 요소가 된다. 해당 번역이 위치하는 주제분야가 무엇이

냐에 따라 텍스트유형, 번역자, 독자의 특수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번역의 본질에 대한 이 같은 이해에 근거하여, 필자는 텍스트유형에 근거한 역사적 고찰, 즉, 해당 번역과 텍스트유형을 공유하는 다른 번역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의 역사성을 비평하는 연구를 내사적 연구, 목표독자들이 해당 번역을 수용할 때 처해있던 사회적 맥락과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외사적 연구, 그리고 해당 번역에 참여한 번역자가 가지는 역사적 함의 내지 번역의 주체 변동 등에 관계된 연구를 번역자 연구로 규정하였다.

각각의 연구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물은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사적 연구의 경우 번역사의 연대기, 즉, 서지목록(bibliographies)이 주요 연구결과이자 특정 번역의 역사적 가치를 판별하는 근거 맥락이 되고, 외사적 연구에서는 번역이 독자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번역에 관한 담론(discourse)을 형성할 수 있다. 번역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는 참여 번역자가 다수일 경우 번역자 사전을 정리해볼 수 있고, 소수라면 미시사적 일대기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필자의 연구의 경우, 내사적 연구에서는 『단권 성경주석』(1934)이라는 주석번역서의 문헌적 측면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1882-1945)에 이르는 근대성경주석번역사 맥락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필요한 번역고고학적 연구는 직접조사를 통한 서지목록 작성과 기존연구를 참조목록으로 활용한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즉, 주변 학문분야의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번역사 자체의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번역자 연구에서도 유사했다. 필자는 『단권 성경주석』을 번역한 번역자들의 역사적 의의, 결과적으로는 번역의 주체 문제로 연결된 그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토 맥락이 근대성경주석번역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근대기독교출판번역사로 맥락을 확장하였다. 이 맥락을 구성하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도서관학과와 신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되었다.

반면 외사적 연구는 『단권 성경주석』이 목표문화(독자)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인데 이 같은 연구 목적은 결국 본 역서를 둘러싼 교회사적 사건인 '아빙돈주석사건'에 관한 기존 교회사 연구들을 심화, 보완하는 방식의 연구가 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번역텍스트분석을 통해 사건과 텍스트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즉, 번역을 통해서 해당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번역에 대한 이해에도 기여한다.

VI. 결론

번역사 연구는 그간 필요성은 많이 강조되었지만, 연구의 실제 면에서는 다른 번역학 연구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번역사 연구를 위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의 부족을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관련 논의의 활성화 정도를 국내·외 번역학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당 논의들의 핵심을 번역사 연구가 가지는 학제성에 대한 인지와 논쟁으로 보아, 그 점을 연구의 성격과 환경, 과정과 목적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그 같은 학제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번역사 연구를 위한 필자의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필자가 구상한 번역사 연구 체계는 번역이라는 현상을 역사적 '사건'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사건의 요소, 즉, 번역의 속성을 주제분야, 텍스트유형(번역의 문헌적 측면), 번역자(인적 측면), 목표독자(사회적 측면)로 명시화함으로써 연구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연구 영역을 세분하였다. 이 같은 정의작업에 기초하여 번역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조명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학제적인 성격을 가진 번역에 대한 균형적이고 총체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하였다.

번역사 연구의 이론에 관한 시론적인 논의와 제안이 포함된 본 연구가 번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김남희. (2012a). 통역의 역사 개관: 고려시대까지. 『통번역학연구』. 16(1): 1-19.
- _____. (2012b). 통역의 역사 개관 II - 조선전기. 『통번역학연구』. 16(4): 25-53.
- _____. (2014). 통역의 역사 개관 III - 조선 후기. 『통번역학연구』. 18(1): 1-39.
- 김봉희. (1987).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총서 22) 한국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 1882-194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사 논의의 전제. 『우리말연구』. 16: 139-161.
- _____. (2008). 한국번역사의 시대 구분. 『번역학연구』. 9(1): 29-69
- 유명우. (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 『번역학연구』. 3(1): 9-38.
- 윤춘병. (1984). 『한국기독교신문-잡지백년사 1885-1945』.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이만열. (1987). 『(한국기독교백년사대계3)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이장식. (1984). 『대한기독교서회 백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aker, M. (ed.). (200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_____. (ed.). (2009).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Bassnett, S. (1980).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Methuen.
- Bastin, G. L. and Paul Bandia. (eds). (2006). Charting the future of translation history. Ottawa, Ontario: University of Ottawa Press.
- Berman, A. (1984).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Paris: Gallimard. (Trans. S. Heyvaert. 1992. The Experience of the Foreign: Culture and Translation in Romantic Germ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윤성우, 이향 공역. 2009.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독일 낭만주의 문화와 번역』. 서울: 철학과현실사.)
- Chapelle, C. A. (ed.). (2013). The Encyclopedia of Applied Linguistics. Chichester, West Sussex: Wiley-Blackwell.

- Delabastita, D. (2012). Response. *Translation Studies*, 5(2): 246-248.
- Gambier, Yves and Doorslaer, Luc van. (eds). (2010).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 Hermans, T. (2012) Response, *Translation Studies* 5(2): 242-245.
- Holmes, J. (1972/1988).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Venuti (ed.). 2004.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2nd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pp. 180-192.
- Millán, C and Bartrina, F. (eds). (2013).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Olohan, M. (2014). History of Science and History of Translation: Disciplinary Commensurability? *The Translator*. Vol. 20, No.1, pp. 9-25.
- Pym, A.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Rundle, C. (2012). Translation as an approach to history, *Translation Studies* 5(2), pp. 232-248.
- Santoyo, J-C. (2006). Blank Spaces in Translation History. In Bastin & Bandia. (eds.). 2006. *Charting the future of translation history*. Ottawa, Ontario: University of Ottawa Press. pp. 11-43.
- Snell-Hornby, M., Jettmarova, Z. and Kaindl, K. (eds). 1997.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lected papers from the EST Congress, Prague 1995*. Amsterdam; Philadelphia: J. Benjamins.
- Stolze, R. 저. 임우영 역. (2011). 『번역이론 입문: 번역학 꿰뚫기』(Übersetzungstheorien).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St-Pierre, P. (2012). Response. *Translation Studies*, 5(2): 240-242.
- Toury, G. (1991). What are Descriptive Studies into Translation Likely to Yield apart from Isolated Description. In Leuven-Zwart & Naaijken. 1991. *Translation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Amsterdam; Atlanta, GA.: Rodopi.
- Venuti, L. (ed.). (2004).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2nd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 Williams, J. and Andrew Chesterman. (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Woodsworth, J. (2001). History of Translation. In Baker (ed.). 200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pp. 100-105.

이름: 최효은(崔曉恩)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우편번호/주소:

E-mail: force_c@naver.com

영한번역에 나타나는 어휘 차용과 교육적 함의
- 경영전문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2016년 3월 26일

고려대 최희경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4. 예비연구 분석결과
5. 향후 연구방향

1. 연구배경 및 목적

- ▶ 분야별 전문지식이 중시되는 통번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어 어휘 차용
 - 등가어가 정립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전략
 - 영어에 익숙한 고객과의 소통 문제
 - 영어 이데올로기
- ▶ 통번역대학원의 전문번역
 - 주제지식을 요하는 경제, 산업, 경영 텍스트 번역
 - 번역후기에 나타나는 어휘 차용 관련문제
- ▶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번역 문제를 번역 및 비번역 경영전문지 자료로 분석하고 교육적 함의를 도출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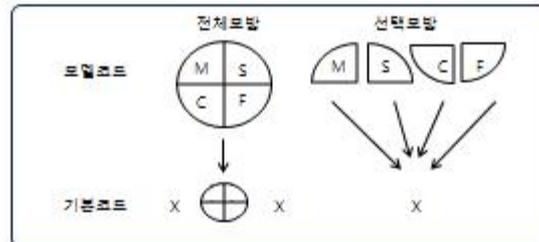
언어사회의 언어변화로서의 차용

- ▶ 언어변화로서의 차용
 - Language Contact > Language Maintenance > Borrowing
 - 언어의 다양한 층위에서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언어요소를 빌려 오거나 채택하는 현상과 그 과정 (Winford, 2003; Gómez-Rendón, 2008)
- ▶ Thomason & Kaufman(1988)의 차용 단계 모형
 - 차용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층위는 어휘 (Sankoff, 2001; Siemund, 2008; Gómez-Rendón, 2008; Baumgarten & Özçetin, 2008; Hilgendorf, 2001)
- ▶ 차용 원인 (Gómez-Rendón, 2008)
 - 사회적, 지리적, 의사소통적(담화적) 원인
 - 언어태도, 충성도, 권위
 - 계통적 유사성 등 언어적 원인
 - 화자의 속성, 언어 사용의 구체적 맥락

2. 이론적 배경

언어사회의 언어변화로서의 차용

- Johanson[1999, 2002a, 2008]의 코드모방[code-copying] 모델



- 외래코드를 모방하는 모든 언어 현상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모형(Johanson, 2002a)
- 어휘의 전체모방을 연구에 적용

2. 이론적 배경

번역기법으로서의 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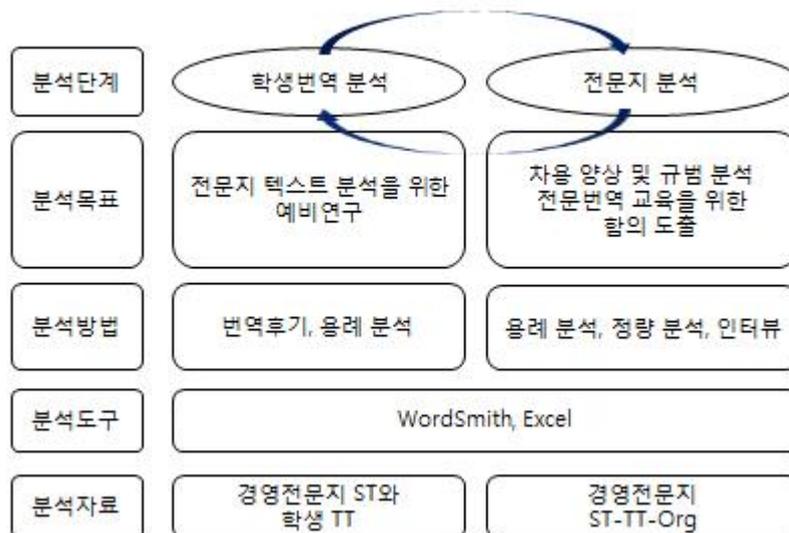
- Vinay와 Darbelnet[1958/2000]
 - 직접번역(direct translation)기법 중 하나로 차용 소개
 - 새로운 기술, 이문화적 표현, 미지의 개념 등 어휘적 공백을 채우는 기법
 - 문체, 궁극적으로 메시지에 영향
 - “비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중 하나 (Baker, 1992)
 - 차용어 또는 설명을 추가한 차용어 사용
- ➔ 도착어에 결여된 요소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어휘 차용을 선택(Siemund, 2008)

2. 이론적 배경

영어 이데올로기와 영어화

- > 접촉하는 언어들의 힘과 지위가 동등하지 않으며 정치, 경제, 사회, 지역적 요인으로 타 언어보다 우세한 언어가 있음(Bielsa & Bassnett, 2009)
- > ‘언어 이데올로기’는 “언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언어 행위가 적합하고 수용 가능하며 모범적인지를 결정”(Gal, 2007, p. 154)
- > 한국에서 영어가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데는 언어 화자들이 영어에 대해 가지는 언어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큼(Park, 2009)
- > Englishization 또는 Anglicism
 - 학술, 기술, 대중매체 등 각 분야에서 영어 지배력과 영향 확산
 - 모국어와 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조정

3.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3.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구분	종류	언어	자료명	표본 및 주제	어절
학생 번역	텍스트	영어	ST_Std_E	경영전문지 텍스트 총 27개 - 컨설팅사, 연구소, MBA (경제, 금융, 회계, 마케팅, 인사, 기술, 제조, 산업, 경영전략, 혁신 등)	18,227
		한국어	TT_Std_K	각 텍스트별 누적 학생번역 총 527개	
경영 전문지	텍스트	영어	ST_Pub_E	경영전문지 텍스트 50개 - 컨설팅사, 연구소, MBA (전략, 인사, 마케팅, 재무회계, 운영, 혁신, 기술 등)	168,682
		한국어	TT_Pub_K	각 텍스트의 번역본	141,570
	비고	한국어	Org_Pub_K	경영전문지 텍스트 50개 - 연구소, 경영대학원, 전문잡지 (전략, 인사, 마케팅, 재무회계, 운영, 혁신, 기술 등)	101,085
일반	참조	영어	Ref_Pub_E	BNC baby	3,975,232
		한국어	Ref_Pub_K	세종코퍼스 현대문어	12,150,271
비고	- 참조코퍼스를 제외하면 모두 2010년~2015년 자료 - 학생번역은 ST: TT= 1:N이므로 어절수를 미산정				

3.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 학생번역 후기 분석
- > 학생번역 ST에서 고빈도 어휘 선정
- > WordSmith의 어휘목록 산출, 참조코퍼스(BNC baby) 대비 키워드 분석
 - 국립국어원 순화어(<https://malteo.korean.go.kr/jsp/index.jsp>) 대비 검토 후 선정

ST_Std_E 어휘목록

ST_Std_E vs. Ref_Pub_E 키워드 분석

3.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ST_Std_E 고빈도 200어휘 중 국립국어원지정 순화대상 어휘
- BNC 참조코퍼스에 비해 빈출하는 어휘 - 경영전문지 특성

어휘	빈도	순화/표준화 대상	순화/표준화 용어
market(s)	73	마켓	시장
percent	72	퍼센트, 퍼센티지	백분율, 퍼
business	44	비즈니스	사업, 업무
global	41	글로벌	지구촌, 국제적, 세계적, 국제, 세계, 전역
balance	37	밸런스	균형
markets	24	마켓	시장
process	20	프로세스	공정, 경과, 과정, 절차
managers	19	매니저	지배인, 관리인, 감독
performance	19	퍼포먼스	공연, 퍼포먼스

4. 예비연구 분석결과

번역후기 분석

- “그래도 좀 이것에 대해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하는 글이어서 영어를 좀 썼는데 괜찮은가요?(예: 프로세스, 프로젝트 DPMO 등은 별다른 설명 없이 번역함)”
 - 차용 선택 시 독자를 고려해 결정
 - 주제지식 보유자라면 영어 차용어에 익숙하다고 전제
 - “...process가 어떤 과정인지 확실치가 않아 구글에서 먼저 pharmaceutical process를 검색해보았습니다.”
 - 텍스트의 주제를 고려하여 어휘가 사용된 맥락을 조사하고 구체적 의미를 전달
 - “Compliance, operator 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가 없으므로.....”
 -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및 조사 부족으로 어휘 결핍이라고 단정
- ➔ 경영전문지 실제 번역 및 비번역 텍스트를 분석하고 교육에 활용할 필요

4. 예비연구 분석결과

process 사례

➤ Process: 27개 ST 중 10개 ST에서 20회 출현



4. 예비연구 분석결과

process 사례

➤ 의미번역 > 차용

Whereas at my firm we use computers to rate all U.S. banks and publish a new rating for every banks at the same time each quarter, the **process** used by S&P — if you can call it that — has virtually no benchmarks to tell when a rating must change.

반면 S&P에서 사용하는 소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언제 평가가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반면 S&P가 사용하는 **절차**는 (절차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지만 언제 등급을 변경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기준이 사실상 없다.

반면, S&P가 사용하고 있는 그나마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등급 변경이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4. 예비연구 분석결과

process 사례

- ▶ 어휘목록의 일부일 때 차용 증가

More recently, companies have allowed major users of their products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development process.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제품의 주요 사용자들이 제품 개발 단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회사들은 상품의 주요 사용자들도 상품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주 사용자들에게 제품 개발 과정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에서는 제품의 리드유저도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5. 향후 연구방향

- ▶ 경영전문지 병렬/비교 코퍼스 분석
- ▶ 전체모방 비율 및 유형 분석
- ▶ 고빈도 어휘가 포함된 어휘목록 차용 분석 – concordance, n-gram 활용
- ▶ 저빈도 어휘 차용에 대한 분석
 - 주로 전문용어일 가능성 (e.g. batch, process capability)
 - 번역사의 의사결정에 “표준” 등 외부 요인 영향
- ▶ 경영전문지 번역사 인터뷰
 - 어휘 차용에 대한 인식, 의사결정 과정, 텍스트 외적 영향 요인 파악

Flipped interpreting classroom

: flipping approaches, student perceptions,
and design considerations



Presenter: Dohun Kim

Flipped vs. Traditional

The **Traditional** Model

Knowledge Acquisition



The **Flipped** Model

Knowledge Acquisition



Guiding Questions

- I. Which activities can best be flipped?
- II. What are the effects of the flipped classroom on learning?
- III.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flipped interpreting classroom?

3

Flipped vs. Traditional

	IIT (Introducing Interpreting & Translation)	IIS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Approach	Improving the tradition of fine lecture	Maintaining the essence of flipped learning
Online Activities	Q&A Comment	+ Lecture quiz Bilingual journal
Onsite Activities	Lecture Quiz Small group task	Individual problem solving Small group task
Technologies	Telepresence Interactive whiteboard LMS	+ Video recording equipment Repository
Learning Resources	Onsite lecture Lecture note Textbook	Video lecture Lecture note Textbook Open content (ORCIT, KOCW, TEDEd, Khan Academy)



Online Lecture



www.orcit.eu Shared Online Resources

Resources

Welcome to ORCIT. Use the icon below to go straight to the training materials, or click on the menus to the right to find out more about the project.

Please note: these tools predominantly use English-English examples and exercises. ORCIT materials are intended to introduce and allow for basic practice in interpreting skills and techniques, rather than provide a platform for language-specific practice.

Also note that some resources give examples of poor student performances. Please bear in mind that these instances are purely illustrative, and do not reflect students' true ability.

ORCIT bookshelf

Shared Online Resources

Menu

1. Introduction: why no notes?

Core skills of interpreting

- active listening
- inferring from context
- analysing key ideas
- deducing/anticipating logic
- empathising with listeners
- visualising structure



< PREV NEXT >

7

Shared Online Resources

Consecutive Without Notes

Definition 1

What is it?

Speaker Interpreter



0:00 / 1:00 PLAYING 100% 100%

8



Onsite Cooperative
Interpreting



9



10

Trial & Err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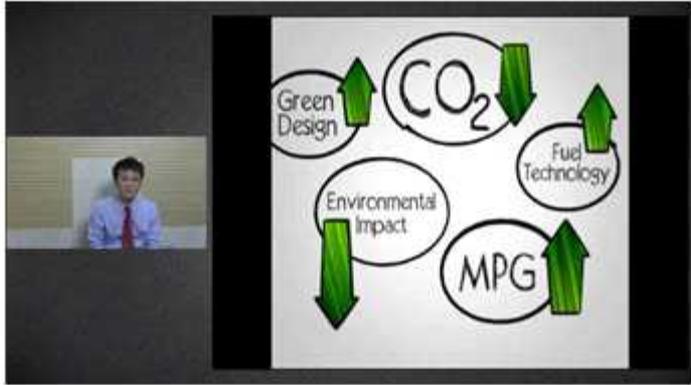


11

Flipped vs. Traditional		
	ACI-I (Advanced Consecutive Interpreting-I)	ACI-II (Advanced Consecutive Interpreting-I)
Approach	Practice-oriented learning	Collaborative learning
Online Activities	Background information Terminology search	+ Class presentation Individual interpreting Bilingual journal
Onsite Activities	Class presentation Individual interpreting STAD interpreting	STAD interpreting Modelling
Technologies	LMS Google Docs	+ Explain Everything Webcam Interactive whiteboard Repository
Learning Resources	Background information Terminology Text speech	Background information Terminology Video presentation & speech

A FUTURE BEYOND TRAFFIC GRIDLOCK

Online L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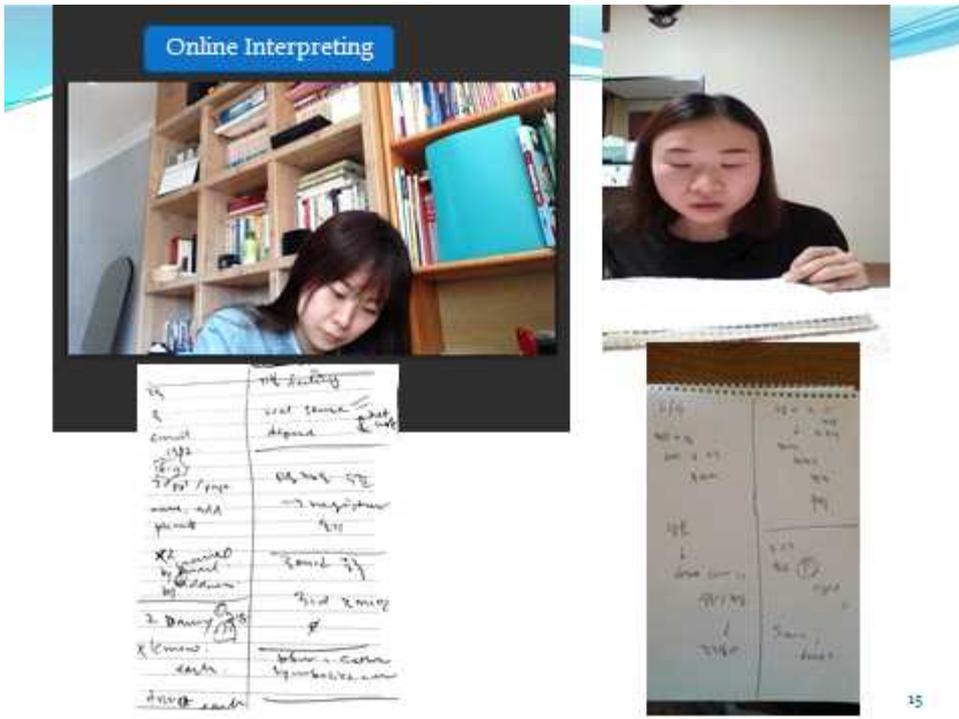


23

Online Lecture & Homework

Online Lecture & Homework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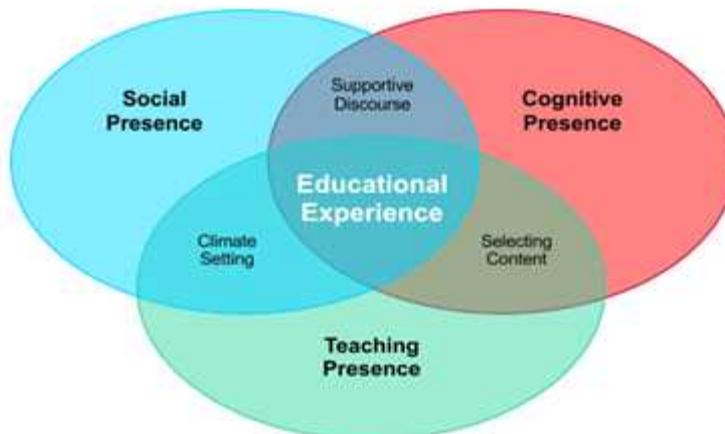
Shared Online Resources



17

Analytic Framework: Community of Inquiry (CoI)

Learning Community



15

Analysis: Participants

		IIS & IIT	ACI-I & ACI-II	χ^2 (p)
Total	Enrolled	23	22	
	Responded	21 (91.3%)	20 (90.9%)	
Gender	Female	20 (95.2%)	18 (85.0%)	.005 (.942)
	Male	1 (4.8%)	1 (5.3%)	
	N/A	-	1 (4.8%)	
Age	20-29	10 (47.6%)	10 (50.0%)	.042 (.998)
	30-39	8 (38.1%)	7 (35.0%)	
	40+	2 (9.5%)	2 (10.0%)	
	N/A	1 (4.8%)	1 (5.0%)	
	M	32.2 ± 7.1	31.4 ± 6.9	t = .323 (.749)

Analysis: Quantitative + Qualitative

CoI Instrument (survey)

- i) Teaching Presence (13 items)
- ii) Social Presence (9 items)
- iii) Cognitive Presence (12 items)

Comparison of individual classrooms within traditional and flipped groups

Comparison of traditional classrooms and flipped ones

Associations amongst TP, SP, CP

Investigation of individual items